

62호

2012년 3,4월호

독립정신 70년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2011년 7월 21일

집안 장군총 앞에서

그 옛날, 드넓은 만주벌판을 주름잡으며 호령했을 고구려인들의 기상과 용지를 느꼈습니다.

약속합니다!

자랑스러운 大韓國人으로서의 드넓은 기상과 용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독립정신' 으로 살겠습니다.



벌(罰)

작자 : 김광섭

나는 2223번
죄인의 옷을 걸치고
가슴에 패를 차고
이름 높은 서대문 형무소
제3동 62호실
북편 독방에 홀로 앉아
네가 광섭이냐고
혼잣말로 물어보았다

3년하고도 8개월
1300여 일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시간을 헤이고 손꼽으면서
똥통과 세숫대야와 걸레
젓가락과 양재기로 더불어
추기나는 어두운 방
널판 위에서 살아왔다

여름이 길고 날이 무더우면
나는 바다를 부르고 산을 그리며
파김치같이 추운 마음
지치고 울분한 한숨에
불을 지르고 나도 타고 싶었다

겨울 긴 밤 추위에 몰려
등이 시리고 허리가 꼬부라지면
나는 슬픔보다도 주름보다도
뒷머리칼이 하나씩 하나씩
서리같이 세어짐을 느꼈다

나는 지금 광섭이로 살고 있으나
나는 지금 잃은 것도 모르고
나는 지금 얻은 것도 모르고 살 뿐이다

그러나 푸른 하늘 아래로 거닐다가도
알지 못할 어둠이 문득 달려들어
내게는 이보다도 더 암담한 일은 없다

그래서 어느덧 눈시울이 추근해지면
어에서 오는 눈물인지는 몰라도
나의 눈물은 이제 드디어
사랑보다도 운명에 속하게 되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처벌된
이 어둠의 보상으로
일본아 너는 물러갔느냐
나는 너의 나라를 주어도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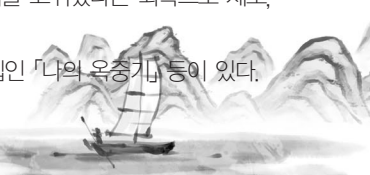
김광섭(1905~1977)

김광섭 시인은 1905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생,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현구, 정인섭, 서항석, 함대훈, 노천명, 모윤숙 시인 등과 「해위문학」 동인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한편, 고요한 서정과 냉철한 지성의 시대적 고뇌와 저항이 결합된 시를 써서 주목받았다. 창씨개명 반대와 반일사상으로 인하여 3년 8개월 간 옥고를 치루었다.

위 시는 1941년 모교인 중등고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죄목으로 체포, 수감되었던 서대문형무소의 독방시절을 회상하며 1948년 「백민」지에 발표한 시다.

시집으로 「동경」, 「마음」, 「해바라기」, 「성북동 비둘기」, 「반응」 등 5권의 시집과 자전적 문집인 「나의 옥중기」 등이 있다.

■ 시 선정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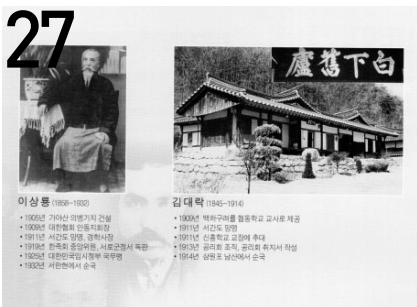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_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 이 두 엽



07 특집 _
이봉창 · 윤봉길 의거 80주년
한 · 중 인민 우호 · 협력의 시발점
| 김 자 통



16 우리역사 바로잡기 _
창군과정 속의 친일세력
| 김 민 철

23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_
안동사람들의 독립운동
| 김 도 현

32 청년학생이 간다 _1
제주 4·3사건
| 김 영 인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학노, 이일선, 김현모, 안효진
 편집·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9 청년학생이 간다 _2
 '재북인사들의 묘'에 머물러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 임 대 현, 박 도 희, 최 희 수

46 영화읽기 _
 <꽃비>에서 <꽃잎>까지, 한국영화와 근현대사
 | 이 두 희

50 백년편지 _
 매헌 윤봉길 의사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이 우 재

54 임정서가 _
 직지와 외규장각 의궤의 어머니 외 4
 | 편 집 부

60 독립정신 이모저모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 두 엽
본회 이사/군산대학교 겸임교수

경향신문은 지난 2월 20일(월)자 보도에서, 최근에 공개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 도야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 관련한 강영훈 주일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의 발언을 미국 측이 기록한 이 전문은,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간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최근 공개된 미국 CIA문서는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일본기업들이(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공

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고, 6개 일본 기업이 한 기업당 100~2,000만 달러를 제공했음을 밝혔다. 이는 1964년 4월 야당인 삼민회의 김준연 의원이 박정희·김종필 라인이 약 2천만 불을 선거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는 등 12가지 의혹을 폭로하자, 4월 25일 김 의원이 전격 구속됐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의 근원에는 1965년에 체결된 ‘굴욕적이고도 매국적인’ 한일협정이 가로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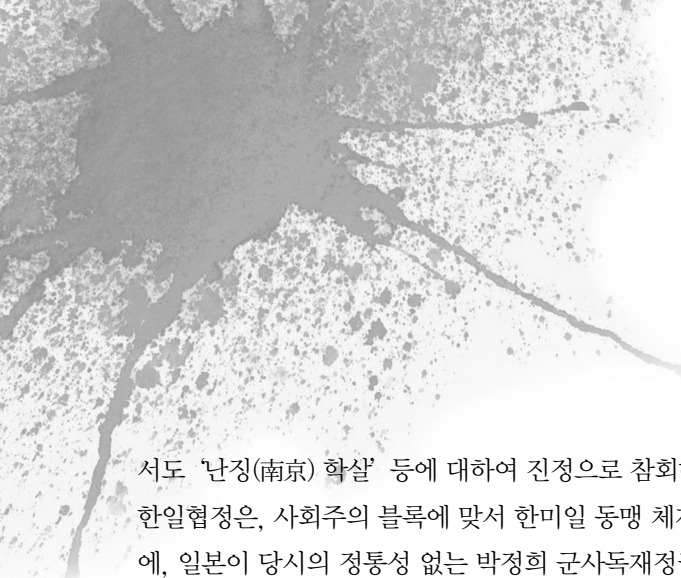
한일협정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사할린 등 미귀환 동포의 문제, 징병·징용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한 한국 국민들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은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 대일 청구권 문제만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밀약’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일체의 현안에 대하여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고 협상자체를 거부해오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 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의 외침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하고, 1965년의 한일협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UN 인권위의 비판 결의가 있었고, 미국 의회는 규탄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결의에 대해서 일체의 반성과 태도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은 결코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없다. 독일은 교과서의 30%를 히틀러 치하에 대한 반성에 할애하고 있다. 독일 수상 빌리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눈보라 치는 흑한의 날씨에 유테인 계토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에 세계인은 감동했다.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교과서 왜곡이라는 ‘소아병적 편집증’을 벗어나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세계의 거인으로 우뚝 서는 중국의 입장에



서도 '난징(南京) 학살' 등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는 일본을 경제파트너로 인정해줄 수 있겠는가? 한일협정은, 사회주의 블록에 맞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미국의 압력 하에, 일본이 당시의 정통성 없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매수한 괴문서에 불과하다. 36년 식민통치에 대한 한마디의 반성과 사죄 없이 '독립축하금'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쥐어준 '더러운 돈'과 식민지배의 '면죄부'를 맞바꾸어버린 치욕의 역사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한다.

4월 총선이 끝나면 다음 국회는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국회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부와 정부 사이는 풀어야 할 숙한 난제가 있어 추진이 쉽지 않지만, 한국 국회가 결의하고 일본의 시민사회와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많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20년 만에 재협상을 타결한 사례도 있고, '뜻과 의지'만 있으면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종로구 중학동의 일본 대사관 앞에 가보라!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단지 식민지의 백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견뎌내야 했던 '평화의 소녀상'이 그 곳에 있다. 많은 시민들이 흑한의 날씨에 찾아와 털모자를 씌워주고 걸옷을 덮어준 소녀상이 그 곳에는 있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이에 맞서서 일본의 한국대사관 앞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 비(碑)를 세우겠다고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1905년 을사늑약 시점에 공표된 시마네현 고시에 있다. 대한제국의 궁성을 포위하고 체결한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의 한일병탄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잘못된 역사인식에 '한일협정'은 기초하고 있다.

36년간의 식민지배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한데, 단지 미국과의 전쟁에 져서 '독립축하금'을 주는 것이 한일협정이고, 그래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말인가?

다음 국회는 '2013년 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재구축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뜻있는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과 함께,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국민행동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이봉창 · 윤봉길 의거 80주년 한 · 중 인민 우호 · 협력의 시발점



김 자 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금년은 1932년에 있었던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동경과 상해에서 행한 의열투쟁이 있는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 임정)가 1919년 창립된 후 처음 몇 해 동안은 활기차게 움직였다. 첫째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문제를 처리하는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박사를 대표로 파견하여 외교적인 수단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했다. 둘째로는 국내의 지하조직을 펴나갔다. 그리하여 1919년의 3월 봉기와 같은 투쟁을 준비했으며 해외에서의 투쟁을 위한 모금활동도 병행했다. 셋째로는 만주에 있는 무장 세력을 강화하여 일본과 무장 대결을 하며 국내 침공준비를 하는데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불과 2~3년 사이에 대부분 심한 좌절을 맛보게 됐다.

- 1) 파리의 강화회의는 대전의 주요 전승국들이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재분배하는 일에만 열중했던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파리평화회의와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창하면서 '민족자결론'을 주장하여 많은 피식민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했으나 실제 이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도 않고 묵살되고 말았다.
- 2)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임시정부에서는 교통부 산하에 연통제를 만들어 국내의 조직화와 임정과 의 연락망을 만들었으나 이러한 조직도 2~3년 사이에 거의 전부가 일제 경찰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다.

3) 만주에서의 무장 항쟁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전개되었으나 각 분파가 대부분 임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3·1봉기와 뒤이은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독립군의 인원도 늘어났으며 활동도 강화되었다. 1920년 6월 초 흥범도, 최진동 등이 이끄는 대한북로도군부소속의 소부대가 두만강을 건너 일제의 순찰 헌병소대에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중국길림성 화룡현 봉오동의 전투가 시작된 일이 있다. 일본군은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봉오동에 공격을 가하여왔다. 이때 독립군은 매복 작전으로 세 방향에서 적에게 기습 응전하여 일본군은 1백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고 말았다. 이에 일본은 독립군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뿌리를 뽑겠다는 결의를 굳히게 된 듯하다. 이때 북로군정서의 본부는 길림성 화룡현 삼도구에 있었는데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봉오동에 있는 북로도군부소속 독립군도 화룡시 서쪽의 웅봉산 자락인 청산리 일대에서 매복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920년 10월 일본군의 토벌연대는 한인의 밀집 구역인 용정을 점령하며 삼도구방면으로 진격했다. 일본군은 이 일대 한인들이 독립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농가들을 불사르고 주민들 수천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경신참변' 이었다. 10월 21일 오전 9시경에 일본의 선발대 2백 명이 매복 장소 바로 앞까지 도달했을 때 독립군이 일제 사격을 가하여 선발대원이 거의 전멸당했다. 일본토벌연대의 본대는 이제 산포와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정면공격을 하였으나 지형이 유리한 독립군에 의하여 그야말로 도륙을 당했다. 이어 우회공격을 시도했으나 독립군의 측면도 벼랑 위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 일본군은 그쪽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내고 밤이 되자 일단 후퇴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사상자 총 수는 1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립군은 22일 새벽 2시 반쯤 하여 청산리 일대에서 철수하여 웅봉산 서쪽의 이도구 방향으로 탈출하여 전투는 일단락 됐다.

이 전투 이후 일본은 한인의 밀집지역인 용정 등에 대부대를 상주하도록 해 두만강 북쪽의 항일 근거지는 보다 후방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만주에는 타 지역에도 상당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어 새로운 근거지에서 각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그중 1924~1925년 사이에 발족된 정의부의 규모가 가장 컸다. 그때까지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통의부가 그 모태였으며 항일 투쟁사상에 불후의 명성을 날린 이상룡·양기탁·이탁·지청천·김동삼·오진동·김상덕 등이 통합에 참여 하면서 여기에 합류했다.

상해에서의 임정활동은 날로 침체하여 외교활동과 국내공작이 함께 쇠퇴한 상태였다. 임정에서는 본부를 동북(만주)지역으로 옮기는 논의까지 하게 되어 우선 석주 이상룡 선생을 임정의 국무령으로 초빙했다. 그런데 이상룡, 이탁, 김동삼 등 지도자가 정의부 본부를 떠난 사이에 정의부 내부에 문제가 생겨 정의부 중심의 임정 개편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초창기의 주요관계자들이 대부분 떠난 26년부터 임정은 석오 이동녕 선생의 지원 하에 실 무는 국무령을 맡게 된 백범 김구 선생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임정은 이때부터 백범 선생이 실제적으로 영도하게 된 것이다. 이제 임정 내에서는 20년대 말에 이르러 당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에게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른바 ‘의열투쟁’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31년 7월 중국길림성 만보산지역에서 한·중 농민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 일어난 것을 일본이 이것을 두 나라 인민을 이간시키는 기회로 삼아 이른바 ‘만보산사건’이 불거졌다. 친일신문들이 마치 이곳에서 한인 다수가 중국인에게 맞아 죽은 것 같은 허위보도를 하며 서울·신의주·원산·인천·평양 등 여러 지역에서 불량배들이 중국교민들을 공격하여 2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한인에 대한 적대감정이 고조되어 상해에서 우리 망명인사에 호의적이며 협력하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갔다.

만보산사건은 또한 일본의 만주강점을 위한 전주곡이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요령 성 유조구 부근에서 남만철로(일본 소유) 일부를 자신들이 폭파시킨 후 이것을 빌미로 군사 행동으로 들어갔다. 중국정부의 부저항주의 때문에 일본은 단시일 내에 만주대부분지역을 점거하는데 성공했다. 이 사변을 중국에서는 흔히 ‘9·18사변’ 혹은 ‘동북강점사변’이라 한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인민의 반일정서가 높아졌음은 물론이었다. 이에 임정의 대부분 인사들은 대일 ‘의열투쟁’은 만보산사건으로 악화된 한·중 인민사이의 불신과 불화를 없애는데도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임정에서는 일본의 만주강점 직후에 ‘특무대’를 결성하여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결하고 모든 책임을 백범 김구 선생에게 일임하였다. 작전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자금 모집에서 작전목표선정과 조직 및 운영 등 모든 일은 백범의 독자적 결정으로 진행하도록 일임했



▲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그 거룩한 희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당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좌측부터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11월쯤에는 한민애국단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에 처음부터 관련한 사람은 국무위원중의 한분인 김철 선생 외에 안공근·안경근 두 종형제와 엄항섭·김해산·김의한 등 7~8명 정도였으며 회원들에게도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작전계획은 1931년 말부터 진행된 것도 있으나 실행에 옮긴 것은 32년 1월 8일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동경 일왕 저격이 첫 번째였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비록 일왕 처결에는 실패했으나 특히 한·중인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이 의사가 거사한 다음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이 사건에 관한 호외를 발행했다. 두 신문 다 이 사건을 ‘불상사건’이라고 보도했으며 일본 내각이 이로 인하여 총사직을 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런데 10일부터는 신문들이 불상사건이란 표현과 더불어 이봉창 이사에 대하여 ‘불경사건 범인’

이라고 호칭하며 그가 서울태생이라는 것도 보도했다. 그리고 거사 후 적어도 15일 이상 여러 가지 후속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은 우리 항일 투쟁세력이 건재하다는 사실,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중국인들의 심정을 나타낸 중국 언론의 보도와 이로 인하여 일본인들이 중국의 언론기관과 청도시의 중국 국민당사습격과 파괴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방화까지 한 것도 알게 되었다. 일본 강점하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며 발행하는 국내신문과 달리 대부분의 중국신문은 이 사건 보도에서 중국인들의 감정을 보다 정확히 노출했다. 중국언론은 사건 다음날인 1월 9일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그중 상해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의 특기할 만한 일부 기사를 아래와 같이 옮긴다. :

민국일보(民國日報) : 「한인저격일황미중, … 불행히 수행 차만 폭파되다」

신보(申報) : 「한국지사저격일황미성」

중앙일보(中央日報) : 「일황저격반아 일 내각 총사퇴, 한인 이봉창 나라 찾기 위하여 저격행위」

대공보(大公報) : 「망한 한국의 일격」

그 외에 중국 각지의 신문들 중 여러 곳에서 이 의사에 대하여 「한국지사」 혹은 「한국의 사」라고 표현하여 하수인에 대한 존경의 뜻을 분명히 했다.

상해의 주요 신문 보도 외에 광둥성 산두(汕頭)시의 '선보'에서는 「조선혁명당의 일황에 폭탄을 던진 장거」라는 제목과 더불어 일왕이 모면한데 대하여 「애석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제1차 대전 이전 독일의 조차지였던 것을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된 산둥성 청도시에는 전쟁 후 일본이 이 지역의 주권을 계속 침해하여 중국인의 반일감정이 높은 곳이다. 이곳에는 일본기업도 많이 진출했으며 일본 거류민도 많이 있었다. 중국국민당의 기관지인 청도의 '민국일보'는 동경의거에 대하여 「한국은 망하지 않을 것, 의사 이봉창이 일왕폭격했으나 미수」라는 표제의 보도를 했다. 여기에 불만을 갖은 청도에 거주하며 중국인 착취로 배 불리고 있는 일본인들이 1월 12일에는 민국일보를 공격하여 방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도의 중국국민당사를 공격하여 이를 불살랐다. 그리고 일본 해군은 군함 두 척을 동원했으며 육전대 6백 명을 불법 상륙시켰다. 동경의거와 이에 관련된 일본 거류민들의 폭동 등에 관한 기사, 체포된 후 이 의사가 보인 의연한 자세, 이 의사의 신상과 한국항일운동현황 및

김구 선생의 술회 등 기사가 1월 중순까지 중국의 여러 신문에 계속 보도되었다. 이 기사로 만보산사건으로 생겨난 한·중 인민의 불신과 악감은 거의 단숨에 일소되었다.

상해 프랑스 조계안의 우리 항일 단체와 교민들에 대하여 중국인들은 원래부터 호의를 갖고 있었다. 만보산사건으로 한국 내에서 불량배들이 중국인을 박해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으나 동경의거가 있는 후에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우호적인 사이가 됐다.

이 의사의 동경의거 외에도 한인애국단은 1932년 4월초부터 조선총독의 저격과 만주지역에서의 관동군 사령관과 만철총재의 저격을 시도했으나 미수로 끝났다. 의열투쟁은 목숨을 내 건 의거는 동일하지만 미수에 그쳤을 때 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기 마련이다.

일본은 1932년 1월 28일 중국 제1의 대도시인 상해를 공격하여 3월 초에 정전이 되기까지 상해시의 북쪽 상당부분을 강점했다. 이 전쟁을 중국에서 ‘1·28사변’ 혹은 ‘상해사변’이라고 불렀다. 이 사변은 3월 초 굴욕적인 휴전으로 끝이 났다. 의기양양한 일본강점군 당국에서는 4월 29일 일본 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기하여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시북부 홍구지역에 있는 홍구공원에서 대대적인 관병식과 더불어 전승경축식을 거행하기로 하여 상해주재각국영사도 여기에 초청했다. 외국영사관에서는 일본의 상해침략으로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이 높은 마당에 중국인의 감정을 무시한 경축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며 이 행사에 대부분 불참했다.

윤봉길 의사는 일본이 상해 복단을 점령한 후 그 지역에서 행상도 하면서 동정을 살피고 지냈는데 이 행사에 관하여 자세한 것을 조사했으며 김구 선생에게 스스로 거사하겠다는 의사를 진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의사는 일반 일본 참석자들이 갖고 들어가는 일본식 도시락과 휴대용 물통의 견본을 제시하며 도시락과 물통모양의 폭탄을 제작할 것을 건의했다 한다. 김구 선생은 중국군병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청년 군관 왕웅(王雄-본명 김홍일) 소교(少校-소령에 해당)에게 짧은 시간 내에 특수폭탄 제조가능성을 상의한 결과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책임을 맡았다. 그리하여 김홍일 씨는 중국인 기술자가 특별히 제작한

도시락형 및 물통형의 폭탄을 완성하여 거사에 사용할 수 있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4월 26일 애국단에 윤 의사 혈서로 된 '선서문'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27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둘째 동생 안공근 선생 집에서 가슴에 선서문을 붙이고 왼손에 폭탄과 오른손에 권총을 들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더불어 김구 선생과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그리고 28일에는 도시락 폭탄을 쌀 일본식 보자기와 일장기를 구입한 다음 거사할 현장인 홍구공원을 사전답사도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자필 이력서와 유서 3편을 써서 김구 선생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시락폭탄과 물통폭탄의 사용법을 거듭 익혔다. 마지막으로 거사 당일에는 아침 6시쯤 애국단의 단원인 김해산 선생의 집에 가서 백범 선생 및 김해산 선생과 3인이 함께 최후의 조찬을 들었다. 이날 첫 행사인 관병식은 9시부터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윤 의사는 8시가 좀 못되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는 시간에 맞춰 공원에 들어섰다. 이날의 참석자는 일본 군인과 거류민 각각 약 1만 명씩 참석했으며 외국인은 거의 없었다.

행사는 2부로 나뉘어져 제1부는 일본군의 위엄을 자랑하는 관병식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30분의 휴식과 장내 정리가 있는 후 전승경축식이 개시되었다. 단상의 중앙에는 상해침략의 최고 원흉인 총사령관 시라가와 대장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외에 상해침략의 육·해군 최고 지휘관 및 상해주재 일본 고위외교관 및 거류민단장 등 군·정수뇌부 7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축식은 11시 30분에 개시되었다. 개회선언과 개회사에 이어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의 합창이 개시되었다. '기미가요'를 합창하는 동안 일본인들은 경건하게 합창에 참여했으므로 아무도 한눈을 팔지 않고 있었다. 합창이 끝나갈 무렵이 가까울수록 감시자들도 경건한 자세에 문히게 되기 마련이었다. 윤 의사는 바로 이 때 물통모양의 폭탄을 단상을 향하여 던졌다.

필자는 애국단원이며 윤 의사와 친구사이인 아버지로부터 그가 아침 일찍 프랑스 조계 내의 정안사공원에서 큼직한 돌덩이를 목표로 향하여 던지는 단련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윤 의사는 정확히 폭탄이 수괴인 시라가와 바로 앞에서 폭발하도록 투척한 것이다. 4월 29일 오전 백범 선생은 윤 의사와 헤어진 후 우리 집에 들었으며 어머니에게 4~5인의 점심을 준비하라고 부탁하며 고기반찬과 술 한 병까지 준비하라고 그 비용을 내놓

았다 한다. 백범 선생이 우리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나 점심값을 내놓고 술까지 사오라는 것을 듣고 중요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짐작했다. 그리고 정오가 좀 지나면서 어머니에게 거리에 나가 혹시 신문 호외가 나오면 갖고 들어오라고 했다. 12시 30분이 좀 지나서 호외가 나왔는데 내용은 중국청년이 폭탄을 던져 경축식 단상에 있는 일본 군·정 거물 7인 전부 사상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신문호외를 보고 백범은 그 자리에 참석한 석오 이동녕 선생과 우천 조완구 선생에게 거사한 사람은 중국청년이 아닌 우리의 애국청년 윤봉길이라고 알리며 축배를 들었다. 약 30분 후 상해의 중국 언론들은 다시 호외를 돌려 거사한 사람은 중국인이 아닌 한인이었음을 정정 보도했다. 모든 의거는 극비리에 진행됐으므로 백범은 가장 믿고 존경하는 동지들에게도 이렇게 성사가 된 후에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9·18 사변에 이은 동북3성과 내몽골의 열하성 강점에 이은 1·28사변과 굴욕적인 평화협정으로 중국인들은 울분에 차 있었다. 윤 의사의 4·29 홍구공원 거사는 모든 중국인에게 큰 분풀이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5년 후에 벌어지는 중·일 전쟁기간에 한·중 인민은 항일전선에 동참했다. 그리고 중국국민정부와 각계의 지원으로 임정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에 크게 도움이 됐다.

중국국민당의 원로인 저보성 선생은 백범 선생을 비롯한 일부 임정요인과 가족들에게 절강성 가흥현에 있는 자신 소유의 가옥에 2년 이상의 피신처를 제공했었다. 필자도 5~6세 때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한 것이 기억난다.

윤 의사 거사가 있는 지 약 1년 후 백범은 중국국민정부의 실권자인 장개석(蔣介石) 군사위원장과 의 회견에서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여 많은 한인 애국청년들이 그곳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됐다. 낙양분교 외에도 여러 분교에 한인학생이 훈련을 받아 이들은 후에 결성된 한국광복군뿐만 아니라 연안에 있는 조선의용군의 주요 군사 지도부를 이루게 된다. 중·일 전쟁이 일어난 후 임정은 호남성장사로 이전한다. 이때 중국 측의 호남성장장은 장치중(張治中) 장군으로 그는 상해사변 때의 주요 지휘관의 하나로 그 때 맺은 인연으로 임정에 항상 우호적이었으며 장사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39년 말 전용승용차를 내주어 백범 선생이 중경까지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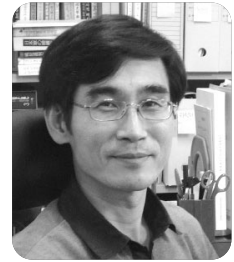
1936년 7월 임정과 산하 3개 당 및 딸린 가족 약 2백 명이 장사에서 광동성 광주로 이동했다. 당시 광동성 성성장은 오철성(吳鐵成) 씨로서 그는 1932년 1월 상해시 시장으로 있었다. 이봉창 의사가 거사할 당시 상해 및 청도의 국민당 기관지를 포함한 각 언론기관의 찬양 내지 동정적인 보도에 격분한 일본인과 일본당국의 항의에 시달렸는데 그때부터 오 씨는 임정과 백범 선생에게 호의를 갖고 협조했다. 1939년 10월 일본군이 관동성에 기습 상륙하여 단시일 안에 광주시와 그 인접인 불산현이 위태로워지자 전시의 위술사령을 겸임한 오성장은 임정과 가족들의 피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중경에 있는 당안 오철성 씨는 국민당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까지 올라 있으면서 여러 해 동안 임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동북과 상해에서의 굴욕을 겪은 중국정부의 실권자인 장개석 군사위원장은 임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43년 중국의 실권 없는 국가주석인 임삼(林森)이 별세하자 장개석은 이제 명실 공히 중국의 영도자가 된 후 해방이 되어 임정이 귀국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땅인 상해에서 창립된 후 1945년 귀국할 때까지 26년간 중국에서 활동했다. 이 기간 중의 꼭 반인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13년은 중국당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항거는 바로 이러한 지원의 시발점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㉔

창군과정 속의 친일세력



김민철 |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역사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2011년 여름 KBS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군을 토벌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살인귀(殺人鬼)부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의 장교 출신 백선엽을 '6·25 전쟁영웅'으로 추앙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그 직후 서울현충원 관계자는 백선엽을 사후에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파주시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상 설립을 강행했다. 민족반역자가 대한민국의 수호신으로 바뀌어 특별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우울한 자화상의 한 장면이다.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하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 단 한 번의 공식 사죄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백선엽을 느닷없이 오성장군인 '원수'로 추대하려 하고, 동상을 세우고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면서 영웅으로 만들려는 이 해괴한 현상이 과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다큐멘터리는 6·25특집이란 명목으로 간도특설대 경력과 활동을 몽땅 빼버려 은폐와 왜곡까지 일삼고 있다.

한편, 간도특설대 창설요원으로 부대가 해산할 때까지 '맹활약' 한 김백일의 경우도 6·25 때 10여 만 명의 피난민을 이송한 '홍남 철수 작전의 주역'으로 둔갑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에 그 동상이 세워졌다. 정작 선행의 주인공인 현봉학 박사를 제치고 김백일을 인도주의의 영웅으로 내세운 것이다. 동상이 설립되자 '거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동상 철거 법적 소송과 함께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벌

였다. 친일 경력을 가진, 그것도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인 경력을 가진 인물을 한국전쟁 때의 행적만을 갖고 기념사업을 강행한 사람들 때문에 양식 있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도대체 간도특설대라는 게 무엇인가. 백선엽과 김백일이 근무한 간도특설대는 1930년대 후반 간도협조회, 신선대와 함께 조선인 항일세력을 탄압한 3대 악질조직 중의 하나였다. 간도협조회는 주로 전향한 항일세력들이 중심이 되었던 군 외곽 특수조직이었고, 신선대는 경찰 산하 특수조직이었던 반면, 간도특설대는 만주국 정규 특수부대로 당시 만주국 최강, 상층의 무적부대로 불렸다. 간도특설대는 1938년 12월 15일 일본인 군관 7명, 조선인 위관 9명과 조선인 사관 9명으로 제1기 지원병 입대식을 가졌다. 송석하, 김찬규(김백일)가 부대 창설 핵심요원으로 활동했다. 모두 7기까지 모집한 간도특설대는 총인원 740여 명 중에서 하사관과 사병 전원, 그리고 군관 절반 이상이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 간도특설대는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간도 지역과 열하 일대에서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 ‘토벌작전’을 모두 108차례 벌였다.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이었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강간·약탈·고문을 당했다.

간도특설대는 항일세력 탄압만으로도 마땅히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나 민간인 고문과 학살, 부녀자 강간, 방화와 약탈 등 반인륜적 범죄까지 저지른 집단인 만큼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도현 공안국의 『간도특설부대 증언자료』 등을 통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사례 1) 1944년 4월, 특설부대는 40여명의 군대를 출동시켜 우수림자에서 약 50리 떨어진 곳에서 팔로군공작인원을 습격하여 무선전대 공작인원 4명을 체포하고 무선전 하나를 약탈하고 팔로군 전사 한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특설부대는 또 이 마을의 패장(牌長)을 불러놓고 칼로 찔러 죽였다. 특히 梅原이란 일본 군의는 이 패장의 머리를 베어 가져다가 가마에 넣어 끓인 후 머리통을 자기의 사무실의 책상에 놓았다. 또 그해 5월, 특설부대는 우수림자에서 한 40세 되는 사람을 잡아서 사격장에 끌고 가 산 사람을 목표로 사격연습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밤중에 사가장자 부근의 부락에서 부녀들만 보면 강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였다.

(사례 2) 1944년 10월, 특설부대는 정보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석갑진에서 약 20리 떨어진 부락을 덮쳤다. 이 마을에 팔로군 식량과 복장이 매장되었다는 정보를 얻고, 특설부대는 이 마을에서 식량 40여 포대와 신발 40여 켤레, 그리고 소 3마리를 잡았다. 도중에 또 팔로군 한 명을 칼로 살해하였다.

동년 음력 8월 1일, 특설부대는 다시 석갑진에서 동쪽으로 약 60리 떨어진 동장화촌에서 팔로군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였다. 날이 밝자 이 마을의 사람들은 특설부대가 온 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쳤는데, 특설부대가 마구 총을 쏘아 민간인 한 명이 총에 맞아 죽고 한 임신부는 다리에 총을 맞고 수수밭까지 겨우 기어갔는데도 토벌대는 잔인무도하게 그녀의 배를 찢러 태아까지 흘러나오게 하였다.

1945년 3월 만주국 국무원이 간도특설대 175명의 대원에게 무공장(武功章), 경훈장(景勳章), 주국장(柱國章) 등을 주었는데, 이 중 조선인이 167명, 일본인이 8명이었다. 항일세력을 탄압하는데 조선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간도특설대원들이 저지른 잔악한 행위는 지금도 연변 주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런 잔악한 행위를 백선엽은 어떻게 변명하고 있을까. 1993년 일본에서 출간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주의주장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간도특설대에서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분을 가지고 토벌에 임하였다.”(白善燁, 『ゲリラ戰-アメリカはなぜ負けたか』, 原書房, 1993년)

참으로 놀라운 역사인식이다. 자신이 저지른 반민족적·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일본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정의나 자유,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조차 찾기 힘들다. 단지 군인이기 때문에 소속된 집단을 위해 상대가 항일세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데만 충실하면 된다는 인식뿐이다. 전형적인 도구주의·기술주의 인식이다. 이런 사람을 공영방송에서 마치 영웅처럼 미화하고 있으니 세상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한다는 최고의 인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역사인식은 실은 한국군의 출생이 가진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있는 친일파 출신 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2. 한국 현대사와 창군

한국 근현대사와 군(인)의 관계를 생각할 때, 뜻밖에도 놀랄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1992년까지 우리 사회는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식민지는 기본적으로 군과 경찰에 의한 이민족 지배체제가 관철되는 사회였고, 해방된 이후에도 이승만 집권 12년을 제외하면, 미군정 3년과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14년 모두 군인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승만 집권기도 3년 동안은 전쟁 시기여서 사실상 군정시대라 할 수 있다. 결국 한국 근현대사의 85%가 넘는 기간을 군인(출신)이 통치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 열쇠는 군에 있으며, 그 군은 창군 과정에서 기본적인 틀과 성격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38선 이남의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했을 때 그곳에서는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탈식민 독립국가 건설 노력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과 민중의 노력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정치의 비정한 논리에 좌절되고 말았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는 1948년 정부를 수립한 뒤까지도 주변 강대국의 영향하에 있었다. 즉 한국을 움직이는 힘은 내부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여기에 한국 국가 형성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으며, 국군의 성격도 또한 이로부터 규정받았다.

주지하듯이 한국군의 형성은 미군의 점령정책의 필요성에서 나왔다. 미군정은 점령 초기부터 한국군 창설에 매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1945년 10월 31일에 이미 미군정의 경무국장 쉬크 준장이 아놀드 군정장관에게 “국방을 위한 준비가 정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보고했다. 이어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포고하여 군정청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사국과 육군과 해군의 2부를 두는 등 본격적인 군대 창설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미·소 간에 아직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즉 미 점령군은 한국에서의 군대 창설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소련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남한 군정 당국자들의 판단에 따라 한국군 창설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우선 미군의 점령정책을 뒷받침하고 한국군 창설의 주역이 될 간부들을 양성하는 한편,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던 자생적인 민간군사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했다. 해방 후 최초로 설립된 군사교육기관이었다. 이 학교는 그 자체로서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배출된 인물들이 이후 군의 최고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한국군의 형성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군사영어학교가 배출한 인물들은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군과 정치 두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모태요, 출발점인 군사영어학교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초창기 한국군의 성격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군정은 ‘불편부당’을 내세워 정원을 각각 일본군계 20명, 만주군계 20명, 광복군계 20명으로 하려 했으나, 이는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광복군이 친일파와 함께 참여할 수 없다 하여 입교를 거부한 점도 있으나, 이미 이 때는 친미군정이나 그렇지 않느냐로 세력이 확연히 구분된 시기여서 일본계와 만주군계가 주도권을 쥌 수밖에 없었다.

한편, 초기 군 창설을 주도한 군사영어학교가 1946년 4월 30일 해체되자 미군정은 5월 1일 태릉에 조선경비대훈련소(조선경비사관학교 또는 육군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경비대 간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조선경비사관학교는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되면서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6기에 걸쳐 총 1,254명의 간부를 배출했다.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 1기부터 4기까지는 대부분이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지 못한 일본군, 만주군들이 입교했다. 5기부터 8기까지는 군을 포함해서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모집했다는데 (6기는 각 연대의 하사관 및 사병을 대상으로 모집) 민간인 대부분은 북한 출신의 반공우익 청

년들이었다. 식민지시대 일본군과 만주군에 이어 세 번째 한국군 형성의 인적 자원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미군정과 함께 군의 수뇌부를 장악해가기 시작한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각 분야를 장악하며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거듭 났다. 다음 표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 중 주요 인물을 뽑아 정권별로 정리한 것이다.

<p>이승만 정권기</p>	<p>강태민(군수사령부 부사령관), 계인주(육군첩보부대장), 김대식(해병대사령관), 김동해(해병대참모장), 김석범(해병대사령관), 김석원(수도사단장), 김응조(2군 정보처장), 김일병(해군참모차장), 김정렬(공군참모총장), 김찬규(제1군단장), 김창룡(방첩대장), 김충남(해군참모차장), 박원석(공사부교장), 백선엽(육군참모총장), 석주암(육군헌병사령관), 송석해(육본 작전참모부장), 신봉균(해병대사령관), 신상철(공사교장), 신태영(육군참모총장), 양국진(제3군단장), 원용덕(헌병총사령관), 유재흥(제1군사령관), 이응문(수도사단장), 이응준(육군참모총장), 이종찬(육군참모총장), 이한림(육사교장), 이형근(육군참모총장), 임충식(제6군단장), 전봉덕(헌병사령관), 정일권(육군참모총장), 채병덕(육군참모총장)</p>
<p>장면 정권기</p>	<p>박원석(공사교장), 신상철(공군참모부장), 이한림(제1군사령관)</p>
<p>박정희 정권기</p>	<p>김동해(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 김용국(해병대부사령관), 박원석(공군참모총장), 박춘식(3군단장), 송석해(국방연구원장), 안광수(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 윤준근(제1군사령관), 이주일(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 임충식(합동참모회의 의장), 정래혁(2군사령관), 최주종(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p>

이승만 정권의 군 수뇌부는 만주군 장교와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장악했으며, 이후 만주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는 만주군 출신들이 정권의 실세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장관이었던 박춘식·백선엽·이한림·임충식 등은 모두 만주군 출신이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여러 정권에 걸쳐 요직을 맡았고, 일부는 5공으로까지 이어졌다.

창군 이후 일본군(만주군) 출신이 군의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병영사회와 나아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심대하고 컸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한 점이다. 국가와 그 기구인 군대는 정통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족적 주체성 속에서 국가적 정통성을 확인

했듯이, 한국군은 의병과 독립군의 독립투쟁 정신을 이어받은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생한국군에서 일본군 출신이 리더십을 장악함으로써 군의 정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한국전쟁 후 반공세력이 득세하고 항일세력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자 군의 광복군 계승노력은 약화·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군의 리더십에서는 독립투쟁정신보다 반공주의와 기술주의가 강조되었다. 이 때문에 5·16군사쿠데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제3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1948년의 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분을 삭제하고,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이라는 표현만 남기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는 표현을 새로 추가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훼손되어 버렸다. 더구나 이들은 5·16 이후 군사정권하에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거나 기회주의자로 변신하여 1970년대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다.

최근 몇 년간 매우 수상한 기운이 돌고 있다. 백선엽, 김백일을 미화하는 행위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미화로 이어지고, 심지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합리화하는 역사관과 역사 교과서 개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4·19혁명 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끌어내려진 남산의 이승만 동상이 이명박 정권 아래 다시 우뚝 섰다. 경북 구미의 박정희 생가에는 지난해 11월 14일 이른바 '탄신일'을 맞아 동상이 세워졌다. 다음날 서울 상암동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박정희기념관도 준공되었다. 1945년의 광복절을 격하하고 1948년의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더욱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을 잡았다고 역사까지 제 입맛대로 바꾸려 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성취한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의 역사를 일부 뉴라이트와 극우 세력의 역사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 횡령의 증거가 바로 반민족적·반인륜적 범죄자를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데 있다.



안동사람들의 독립운동

김도현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이사 \ 前 문화체육부 차관

항일운동 전야 안동의 풍경

안동 동녘 낙동강변에 장대한 한옥인 임청각(보물 제182호)이 있고 여기에 합류한 반변천을 따라 동해로 넘어가는 국도를 10여 킬로미터 가면 우람한 한옥(의성 김씨 종택 보물 제40호)이 마을을 이룬 '내앞(川前)'이 나오고 다시 물길을 올라가면 지금은 임하댐 물아래 잠겼지만 몇 문중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문화마을들이 있었다. 풍수설에 '밝은 달 빛 아래 비단을 빨아 펴놓은 모양(浣紗明月形)'이라 불린 이 마을 사람들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상향 무의구곡을 본따 '도연구곡'으로 부르기도 했다. 실제 임청각을 중심으로 세거하던 고성 이씨 풍류선비들이 달 밝고 바람 시원한 날을 잡아 커다란 배에 음식과 술에 지필묵을 갖추어 반변천을 거슬러 올라가며 좋은 벗들이 모일 만한 곳에 배를 대고 시를 짓고 담소하며 즐기다가 다시 배를 저어 그 다음 마을 벗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긴 일들을 기록한 그림 화첩을 남기기도 했다[허주이종악화첩]. 물론 여기라고 해서 풍류와 풍요, 평화만이 있던 것은 아니고 봉건적 갈등과 모순이 내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동의 경우는 좀 별다르다. 농지가 넓지 않고 대지주보다는 자작과 자작 겸 소작이 많았다. 동족마을과 양반인구가 경북 평균의 3배가 되었다. 조선조 중기 이후 이곳 주류사림은

남인에 속해 벼슬길이 막히고 서원과 사우를 중심으로 학문과 문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문중끼리 통혼권을 이루어 자율적 양반의식을 만들어 지키면서 주자-퇴계학맥의 계승본산, 한국 주자학 문화의 발신지를 자처했다. 퇴계향약을 준수하며 지방수령의 탐학을 견제하고 스스로도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엄격하려 했다. 예컨대 그 혼한 지방수령의 선정비나 영세불망비(사실은 탐학의 벼슬아치들이 강제로 자화자찬을 한 것이 대부분인)가 아예 없었다. 봉건적 지배·피지배 갈등과 모순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선조 말의 민란도 적었다. 예컨대 1891년 부사 김학수와 아전의 횡포 토색으로 민란이 일어나려하자 당황한 부사가 당시 퇴계학맥의 영수인 김홍락에게 사태수습을 간청하자 김홍락이 사양 끝에 향청에 나아가 부사와 임장에게 폐정을 나무라고 시정을 촉구하자 물려든 군중들이 몽둥이를 버리고 사태가 안정되었다.

한국독립운동의 축약판 일제의 침략이 휘몰아치자 이곳이 한국독립운동의 성지로 일변했다.[김희곤 교수] 그럴 만하다. 안동은 한국독립운동의 남상(濫觴)이고, 이곳은 그 원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동독립운동에는 51년에 걸친 한국독립운동역사의 모든 전개양태와 사상이 축약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의 태두라고 할 조동걸·김희곤 교수 등의 연구로 잘 드러나 있다. 우리 독립운동은 1. 안동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해방의 날 최후까지 계속되며 2. 척사의병, 순국계몽, 농민·노동자·학생 사회주의 운동, 해외 망명 등 모든 양상과 사상을 포괄하며 3. 300여 명의 독립유공 서훈자를 배출하고(시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도 단위보다도 많다) 4. 수많은 전국적 지도자가 있었고, 유교 문화권 혁신유림의 식민지 해방투쟁이란 세계사적으로 특별한 성격을 띠고 세계 반제 반군국 투쟁에 닿아있다.

의병투쟁이 처음 일어나다

제국주의 침략의 실마리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을 어사가 안동의 김홍락에게 보내자 되돌려 보냈다. 조정이 외세에 기울자 1880년 11월, 도산서원은 통문을 내어 안동에서 도회를 소집하고 이만손을 소두로 하는 '영남만인소'의 단초를 연다. 이것이 바로 척사운동이었다.

우리 독립운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빌미로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

사건으로 촉발된 갑오의병을 출발로 보는데, 이것 역시 안동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내려졌다. 1896년 초부터 안동의 서원은 앞다투어 안동유림의 최고 지도자들을 망라한 김홍락, 김도화, 권세연, 곽중석, 류지호, 김윤모, 김양진, 권진영 등을 발의자로 통문을 내고, 의병을 결성하는 대회에 1만명이 참가하였다. 이른바 ‘병호시비(100여 년 계속된 병산서원(서애)파와 호계서원(학봉)파의 갈등)’를 뛰어넘어 모든 유림이 단결했다. 하회의 풍산 류씨, 수곡의 전주 류씨, 닭실의 안동 권씨, 천전·금계의 의성 김씨, 해저의 의성 김씨, 법흥의 고성 이씨, 도산의 진성 이씨 등 151개 문중과 서원이 2만량의 의연금 기부를 약속했다. 일본군은 안동부를 방화하고 퇴계종택과 학봉종택에서 종손을 결박하여 굴욕시키는 수난을 강요했다. 이만도의 선성의병, 김도현의 영양의병도 가세했다.

한일의정서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는 시기의 안동의병투쟁은 전기에 비해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유시연, 박처사 등에 의해 이어지며 신돌석 의진에 가담하기도 한다.

혁신유림에 의한 계몽운동

전국적으로 실력양성운동이 일어나자 안동유림은 혁신유림으로 전환 및 발전한다. 류인식을 중심으로 척사보수유림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1907년 김대락, 이상룡, 김후병, 하중환, 김동삼 등은 근대적 중등교육기관인 ‘협동학교’를 지금의 독립기념관 자리에 만든다. 혁신유림은 유교적 가치를 지키면서 척사운동에서 민족주의적 운동으로 발전한 유림으로서 박은식, 신채호 등이 이에 속한다.[조동걸] 집단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곳은 안동이다. 협동학교는 3·1운동으로 강제폐교 될 때까지 독립운동의 주역을 양성했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는 무장투쟁을 염두에 둔 정당적 단체를 지향하면서 일진회와 연합하려는 중앙본회를 “까마귀와 백로는 한 무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회원수가 수천명에 이르렀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에서 순국투쟁이 일어났다. 안동에서는 ‘적의 백성’으로 하루도 살 수 없다며 24일을 단식한 끝에 운명한 퇴계후손 이만도를 뒤따라 김순흠, 이중언, 류도발, 류신영, 이현섭, 권용하, 김택진, 이명우 부부 등 지사들이 단식 혹은 머리를 기둥에 찝으며

명이 잦아질 때까지 을사오적을 규탄하며 “곧 뒤따라가겠다”는 죽음의 작별인사를 지켜 자정순국했다. 일경은 부고를 못 내게 하고 소문이 못나게 안간힘을 다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망명과 3.1운동 파리장서사건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 아래 지배층은 친일과 항일로 나누어지지만, 안동의 주요인물들은 민주망명의 길을 택하여 독립군기지건설에 나섰다. 한편 교육 구국운동은 계속되어 서후의 광동학술강습소 등 30개의 사립학교운동이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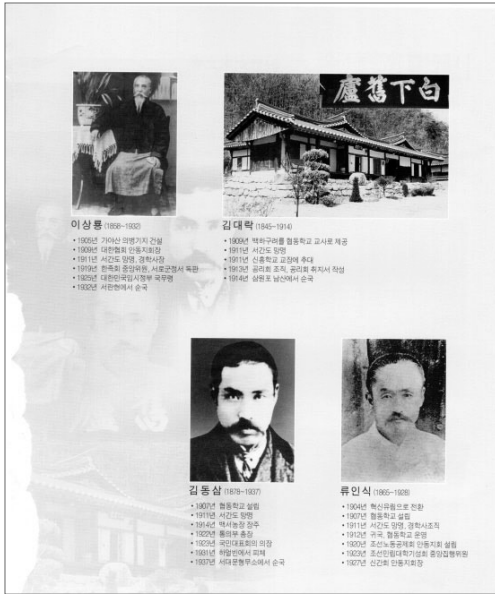
안동의 3·1운동은 경북지역에서 가장 격렬하여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안동 전역에서 14회 발생, 1만여 명이 참여, 168명이 실형을 받고, 14명이 민족대표 33인이 받은 3년형보다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유림과 함께 기독교인도 앞장을 섰고 농민도 대거 참여했다. 신식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참여는 적었다.

유림의 파리장서사건에도 경북유림, 특히 안동유림 이증업 등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김창숙, 광종석, 김황 등 주도자는 학통과 가문으로 안동유림과 깊이 관련된 인사들이고 김병식, 류연박, 김양모 등 안동유림이 서명에 참여했다. ‘2차 유림단 사건’에도 이증업의 아들 이중흠이 관련되어 이만도, 이증업, 이중흠 3대와 이증업의 부인 김락이 3·1운동 참가로 실명하는 등 일가가 독립운동전열에서 산화하는 전형적 안동 항일유림의 모습을 보인다.

노동·농민 반 서원운동 사회주의운동

1920년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일제의 압제는 교활하고 정교해지면서 독립운동은 농민·노동·사회·사상운동으로 확산되고 이 방면에서 안동 독립운동도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안동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지만, 노동공제회 지회가 1,400여명의 회원을 가졌다. 안동의 농민운동은 풍산소작인회가 1926년 3,000여명의 소작인총회를 가지는 등



◀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많은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기개를 드러냈다. <사진 제공-안동독립운동기념관>

소작료 인하 등을 내걸고 투쟁하였다. 안동의 노동농민운동 주동인물은 후일 전국적 사상운동 지도자가 되었다. 또 안동에서는 류인식 등의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있었고, 안동물산장려회가 조직되었고 서울에서 열린 조선물산장려회 시가행진에 경상도를 대표하여 안동특산물 안동포를 깃발로 제작했다. 3·1운동 뒤 국외독립자금을 지원하는 활동도 김시현, 학봉종손 김용환, 이상룡의 집안 이종국, 이태기 등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거나 모금에 참여했다. 이들은 강도나 도박으로 날린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김재봉은 안동 출신이며, 제1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되었다. 25년 안동에서 조직된 화성회의 권오설, 이준태, 김남수, 안상길 등은 안동에서 사상운동을 지도했을 뿐 아니라 1차, 2차 공산당사건에서 보듯이 초기 한국 공산주의운동을 대표하여 권오설은 2차 공산당 조직후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가 되었고 6·10만세운동에서 전국적 주도자역할을 했다. 이들의 동생 권오직, 안상훈 역시 전국적 지도자였다.

민족해방운동의 통일전선운동인 신간회가 조직되자 1927년 조직된 신간회안동지회는 류인식, 정현모 권태석을 임원으로 회원 700여명인 전국에서 평양 다음 많았다. 일제의 유교친일화 정책에 유림이 이용되자 영남친목회박멸대회 향교와 도산서원철폐운동을 전개했다.

1930년대 일제 군국주의화가 강화되고 공산당 사건으로 안동출신 공산당지도자들이 차례로 검거되는 정세아래서 비밀결사인 안동콤무니스트그룹이 안상운 등이 중심이 되어 세포조직으로 농민대중에 침투하여 지역을 넓혀갔다.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으로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강요했다. 안동에서는 유림출신의 이원영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네 번이나 투옥되어 감옥에서 해방을 맞는다. 역시 유림 출신의 이현구는 창씨개명을 거부하여 단식 36일 만에 순국한다. 전국에서 유일한 예라고 한다.

일제가 마지막 발악으로 중일 전쟁에 이어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학도병지원을 강요하자 안동농림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재규(대통령 박정희를 저격한 중앙정보부장)는 소년항공대에 입대하지만, 임시정부의 방송으로 일제 패망을 예견한 학생들이 조선회복연구단을 조직하여 이상룡의 손자 이대용 등의 도움을 받으며 무력항쟁을 준비하다가 불행히도 45년 3월 검거되어 해방 뒤 석방된다. 필자는 주동자의 한 분인 이승태와 같은 대구형무소생활을 한 독립운동자이며 통일 운동가인 박진목으로부터 이승태의 능률한 옥중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 안동 항일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건이다.

만주지역 독립운동

안동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만주에서의 활동은 특기해야 한다. 우리 독립운동 사상 만주독립운동, 특히 안동사람이 주축이 된 신흥무관학교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신흥무관학교 관계자의 독립운동사상의 위치를 보면, 이상룡은 1925년 임시정부수반이 대통령에서 국무령으로 바뀔 때 초대 국무령, 이회영은 한국아나키즘운동의 원로, 이동녕은 임시의정원 의장, 국무령과 주석, 이시영은 임정 법무총장과 대한민국 부통령, 김동삼은 1923년 독립운동 사상 단 한 차례 전체 독립운동가모임이었던 1923년 상해 국민대표회의 의장(부의장은 안창호), 윤기섭은 과도입법

의원부의장, 김형식은 1948년 평양남북연석회의에서 개회연설을 하였다. 이 가운데 이상룡, 김동삼, 김형식이 안동출신이다. 1911년 초부터 김대락을 시작으로 이상룡, 김동삼, 류인식 등이 아들 형제와 함께 고향을 떠나 만주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러 간다. 이상룡은 “아름다운 고향동산 슬퍼하지 말아라. 태평성세 이룬 날 돌아와 머물리라”(거국음)하며 고향과 벗들을 작별하고, 김홍락 문하에서 동문수학하고 이중업과 함께 자에 ‘초’(初)자가 있어 3초로 불리던 김형모는 “뛰어난 기개 중원을 덮으리”라며 성공을 기원했다. 이들은 처남 매부 한집안 또는 누대 혼맥으로 얽힌 사이. 이 무렵 만주 망명에 오른 안동과 인근 출신은 100여 가구 10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의 인연과 준비로 1920년대에는 25,000명에 이르러 “만주의 허허벌판이 이 때부터 흰옷 입은 우리민족들로 하얗게 덮여갔다.”(이상룡의 손부 허은의 회고)고 한다. 이들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서로군정서를 조직하여 이상룡은 교장과 최고직인 독판에, 김동삼은 군사참모부참모장에 선임되고, 지청천(후일 광복군사령관 이청천)등이 활약한다. 김형식, 김동만, 김규식, 김원식, 김만수, 류기동, 류립, 김창로, 김응섭 등 안동출신이 중요임무를 맡았다. 여기서 길러진 인재들이 청산리전투를 비롯한 독립투쟁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다. 1930년대가 되어 김동삼이 일제에 검거되어 1937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고 이상룡은 1932년 74세로 장사한다. 그 아래 세대들은 다수가 사회주의로 전환하여 조선공산당만주총국 항일연군의 간부가 되어 항일전에 참여하며 이상룡의 손자 이병하는 한때 김일성을 만나 지도하기도 한다. 특기할 것은 류인식이 ‘대동사’를, 이상룡이 ‘대동역사’를 저술했는데 단군을 민족의 기원으로 하고 발해사를 포함시켜 우리의 영역을 만주로 확대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기지로써 만주에 근거를 제시하였다.

김희곤 교수는 안동인들의 만주 독립운동의 특성을 이렇게 말한다. 1. 독립전쟁론. 이상룡은 안창호에게 “광복은 외교에서 시작하여 혈전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편지를 보냈다. 2. 좌우 갈등 속에서 통합을 이룸. 사회주의도 유학의 범주에서 해석 수용한다. 김좌진 등이 좌우 갈등 속에 희생된 것과 비교가 된다. 3. 독립운동사상최고반열의 지도자. 이상룡, 김대락은 경학사 사장, 김동삼은 1920년대 ‘남만주의 호랑이’로 불린 만주의 최고지도자며, 이광민, 한호, 류만희는 신세대 주자. 4. 몇 개의 문중이 주류. 이상룡 등 고성 이씨 김대락, 김동삼, 김형식 등 의성 김씨 류인식 등 전주 류씨 이원일 등 진성 이씨 김응섭 등 풍산 김씨, 김시현 등 안동 김씨, 배영진 등 흥해 배씨, 6·10만세운동의 안동 권씨 등은 수백 년에 걸친 혼맥으로 이어져 있다. 이 영향도 있어 유림파리장서사건과 6·10만세운동 때 일부가 발각되어도 끝까지 비밀이 지켜

졌다. 여기에 보탠다면 ‘효’, ‘헌신’ 과 같은 극진한 도덕률이 지켜졌다. 예컨대, 이상룡이 살던 집에 비가 새서 아들 이상룡은 책상 두 개를 붙여놓고 부친을 주무시게 하고, 우산을 받치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으며, 마침내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그 손자 이병화는 조부가 별세하자 가묘를 쓰고 시묘를 했다. 백범일지에 ‘이상룡의 자손이 살부회(殺父會)를 조직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상자를 한자로 틀리게는 썼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쓴 잘못이다. 김동삼은 만주 망명기간 중 부인은 두 번, 며느리는 3번밖에(한번은 옥중면회) 만나지 않은 정말 불고가사 헌신이였다. 이상룡은 나라를 되찾지 못했다고, 사후 유해를 만주에 묻게 했고 김동삼은 화장하여 한강에 뿌려달라고 유언했다. 이것은 대체로 전체 안동 독립운동의 특성과도 같다. 또 다른 국외 독립운동으로 김시현은 1922 코민테른의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김재봉과 함께 참석했고, 의열투쟁으로 끊임없이 옥문을 드나들었다. 해방 뒤 안동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 암살을 주도하여 다시 옥고를 치른다. 김지섭은 1924년 일본왕궁 앞에 폭탄을 던졌다. 김재봉은 귀국 뒤 조선공산당을 창당한다. 이육사는 김시현과 함께 남경에서 김원봉을 만나고 북경에 유학한 뒤 귀국했다가 검거되어 이때부터 형무소죄수 번호 264를 호로 쓴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며, 내로라하는 문인들이 변절하던 1943년,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러 중국에 갔다가 일시 귀국길에 체포되어 북경에 압송되어 옥사했다. 옹혼 비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와 산문으로 민족의 기개를 불멸의 글로 남겼다.

안동인들은 일제 패망을 앞두고 임시정부와 미국 OSS의 연합작전에 광복군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백범이 통탄을 하며 아쉬워한 이 작전이 일제의 패망 전에 실현되었다면 해방 뒤 한국의 위치와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작전이였다. 최후의 광복운동에 안동인이 참여한 것이다.

참으로 더 중요한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바깥 어른(남성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유공자로 추대되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도 하지만, 훈장도 없고 역사책에 이름 한 자 오르지 않은”(허은 회고록 기록자 서문) 독립운동가의 아내, 어머니, 딸들의 독립운동이 있다, 적빈의 환경에서 먹을 것 장만하고 해어진 옷 깎고, 애기 낳아 키우고, 농사짓고, 동지들 뒷바라지하고, 밀정과 고자질꾼이 사위를 둘러싼 가운데 일제의 독수로부터 남편, 자식, 부형을 숨기는 이 어려운 일들, 더구나 설한풍 몰아치고 아는 이 없는 이역만리 만주벌에서라. 이것은 기록할 수도 없다. 필자가 만난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 김동삼 선생의 자부 이해동 여사의 회고록에는 담담히 그러나 충기 있게 대강을 기록했지만 그 신산함, 간난함의 만분의 일이나 기록되었을까? 지금 우리

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얼떨결에 글을 쓴다고 했다가 김희곤, 조동걸, 서중석 교수의 책과 허은, 이해동 여사의 회고록을 보고 눈물로 설 연휴를 보냈다. 더구나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은 바로 필자의 직계 또는 직계와 다름없는 조상들의 이야기.

아! 허다한 애국자 및 지도자가 있겠지만 이 분들 같은 몸으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헌신과 희생을 오늘 우리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제주 4·3사건

- 4·3 속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다 -



김 영 인
성균관대 사학과 3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interview ①

“하루빨리 4·3에 제대로 된 이름을 달아줘야”

- 김창후(제주 4·3 연구소장)

잊을 수 없는 4월이다. 한 해를 돌아 다시 만난 봄.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제주4·3사건(이하:4·3)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정당한 평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주4·3연구소(이하:연구소)>의 김창후 소장님을 만났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지면을 빌려 바쁜 와중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연구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연구소는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1989년 5월에 설립됐다. 만 23년이 지나는 동안 4·3 관련 조사 및 연구와 유적 조사 및 발굴, 출판과 추모, 인권평화를 위한 국내외 연대사업과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집안에는 4·3 희생자가 없지만 제주



도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아픈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연구소 설립부터 참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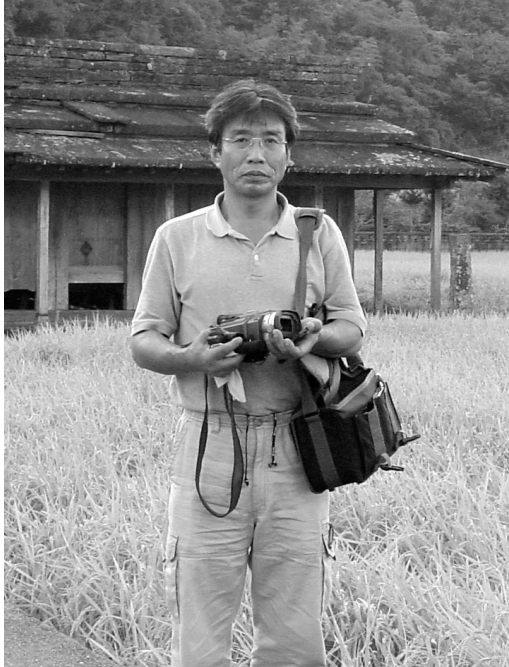
■ 4·3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4·3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것이다. 정부에서는 ‘제주 4·3 특별법(2001.01)’을 통해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발발 원인에 따라 4·3의 성격을 짚어본다면 우선 ‘통일운동적 성격’을 들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제주도에서는 낮은 투표율로 무효화되고, 이후 제주도민 학살의 주원인이 되는데 당시 ‘5·10선거 반대’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주진영에서 통일정부 수립의 방편으로 행해졌었다. 찬성은 미군정과 한민당 세력뿐이었다. 두 번째로 ‘민중 항쟁적 성격’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경제 파탄, 친일파 기용 등으로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1947년 3월 1일, 3·1사건 이후 젊은이들이 아무 죄 없이 무차별 검거되거나 탄압을 받아 제주도에서는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때 민중들은 항거해 일어선다는 민중항쟁적 측면이 있다.

■ 그동안 4·3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 중 4·3연구소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

너무 많아 특별히 무엇을 꼽기가 어렵다(웃음). 연구소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연구 및 조사, 출판과 학술회의, 그리고 추모와 국내외 연대 사업 등 4·3의 진실규명과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우선 100여 권의 연구·조사물이 단행본과 각종 자료집으로 간행됐다. 그중에서도 제주도의 160여 개 마을, 4·3유적 700여 곳을 찾아다니며 상세히 조사하고 기술한 「제주 4·3유적 1,2」가 기억에 남는다. 예산 부족으로 마을 40여 곳을 조사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나, 곧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연구과정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그 학살지를 조사하고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을 다녔는데 그중 대마도 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4·3 당시 수장된 유해들이 쿠루시오 해류를 타고 대마도 해역으로 표류하자 대마도민들이 그 유해를 수습하여 안치했고 지금까지 대마도 이즈하라의 태평사라는 절에는 화장된 유해들이 잘 모여져 있다. 지난 2003년 그렇게 대마도로 떠나려 간 4·3 수장 유해를 찾아 대마도 전역을 조사해 「대마도를 떠도는 4·3



▲ 수장된 제주도민의 유해를 찾아서 대마도 전역을 현지조사 하던 당시의 김장후 소장

제라고 생각한다. 2000년에 4·3 특별법이 공포되고 2003년에는 정부 이름으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걸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로 5·18의 경우에도 못한 사실이다. 그리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3년과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 와서 국민들에게 ‘과거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함께 <4·3평화재단>이 설립되고 ‘4·3평화공원’이 만들어지는 등 희망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보수진영에서는 정부 이름으로 발행한 보고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보고서를 배포하지 말라느니, 4·3희생자 선정이 잘못됐다느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패소라는 결과를 내렸지만 현 정권이 들어선 후 과거 정부에서 행했던 것을 부인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현 정권이 전 정권과 맞지 않는다고 과거에 정부 이름으로 했던 일 자체를 부인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역사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또한 지금 정권이 만약 다른 성향의 정권으로 바뀐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떠나 이것은 한국 역사의 근본적 문제인 것 같다.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

넛』이라는 책을 썼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4·3관련 넛들을 위해 그래도 뭔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관련 분야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일반인의 4·3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도 꾸준히 해왔다. 이 모든 활동을 바탕으로 4·3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상규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다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많다(웃음). 그중에서도 정권이 바뀌에 따라 같은 일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문



■ 소장님께서 바라는 4·3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2008년에 설립된 '4·3평화기념관' 입구에 백비(白碑)-아무 글도 안 써진 채 눕혀진-가 있다. 4·3이 정당한 이름을 찾을 때까지 백비로 남긴다는 취지이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4·3에 제대로 된 이름을 달아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3의 발발 원인을 어느 한 가지 잣대로 볼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또 이 모두를 넘어서서 전지구적이고 보편적 진리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 속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병존하고 있는 4·3과 같은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알릴 필요가 있다. 4·3이 세계 평화와 인권의 초석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주도가 인권유린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생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을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있다. 때문에 폭넓게 사회를 보는 생각이랄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어두운 역사도 많다. 제주도도 그 중 하나다.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도지만 그 이면에는 4·3과 같은 어두운 사건이 존재한다. 이런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 속에서 역사의 어두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앞날이나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interview ②

“아직까지도 제주도에만 갇혀 있는 4·3, 꺼내서 모두가 볼 수 있어야”

- 현기영(소설가/前 문화예술진흥원장)

작년 12월 어느 날,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소설가 현기영 선생님을 만났다.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으로 등단한 후, 제주 4·3사건(이하:4·3)을 작품화한 「순이삼촌」과 자전적 성장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등을 통해 한평생 민중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잠든 사회’를 일깨워 온 민족문학의 대가인 선생님은 그날 역시 이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었다.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해주신 현기영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 제주도에서 성장기를 보냈다고 들었다.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는 제주도밖에 몰랐으니까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특별히 아름다운 줄 몰랐다. 또한 제주도에서의 내 어린 시절은 4·3이 발생하고 여러 해 동안 일어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 속 제주도는 역설적이게도 행복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다. 결국 한때 나에게 제주도는 버리고 싶은 것의 전부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어린 시절 나의 꿈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뚫고 육지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고향이 지긋지긋했다. 그러다가 대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와서 육지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제주도를 알게 됐다. 제주도와 서울간의 객관적이고도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인 거리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제주도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제주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됐다. 다시 본 제주도는 부모, 즉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너무나 심하게 학대받은 고아’와 같았다.

■ 역사의 아픔인 4·3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려움은 없었는가?

처음에는 4·3을 가지고 문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당시 주류였던 ‘농촌문학’만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또한 등단을 하니 자연스럽게 엘리트의식이 생기더라. 지식인은 정치현상에 강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뎨대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여받은 것이다.



그 당시 침묵은 곧 어떠한 상황에 대한 묵인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즉, 언급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때까지 금기시되어있던 4·3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순이삼촌」을 세상에 내놨다. 「순이삼촌」을 발간할 당시 나라가 놀랐다. 나를,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군부가 저지른 것 자체는 사실이기에 무작정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지 않았겠는가. 정부는 곧 나를 잡아서 고문하고 두 번째 발간을 금지했다. 이후 몽둥이만 보면 고문 받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한동안 무척 힘들었다.



▲ 필자와 인터뷰 중인 소설가 현기영

■ 선생님은 문학 활동 뿐 아니라 <제주4·3연구소(이하 :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히 4·3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 이처럼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순이삼촌」을 쓰고 난 후 10살 이상 차이나는 대학생 친구들이나 고향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친목모임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곧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최초의 4·3 위령제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의 움직임은 4·3진상 규명운동과 외래 자본에 의한 토지침탈 등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다. 연구를 출범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출범 후에는 저절로 굴러가는 부분이 있었다. 뛰어난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자리는 문학적인 삶과는 먼 CEO에 가까운 공직이었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렇지만 ‘현기영=4·3’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4·3도 공직에 간다. 붉으죽죽한 사람도 공직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내가 원장이 되니 유관 단체장들이 4·3에 관심 갖기 시작하더라. 4·3이 복권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 4·3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역사적 청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4·3사건은 아직까지도 제주도에만 갇혀 있다. 꺼내서 모두가 봐야 한다. 국내화를 넘어 세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4·3은 세계체제(미국)와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세계평화와 전쟁반대의 근거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 같다. 또한 4·3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 후에 수도 없이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그 사건에 연관되어있거나 그 지역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모든 인류의 것으로 보편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화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영화화되지 않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이 제대로 나와야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 무척이나 중요하듯 예술가들의 활동도 그만큼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끔 유신체제의 기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씨가 대두되는 것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다른 것들을 떠나서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렇듯 가끔 어떤 일에 쓸데없는 동정심으로 다가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과거의 일에 관심으로 갖고 아직까지도 숨죽이고 혈떡거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보기 바란다. 물론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강산에씨가 마치 본인의 이야기처럼 '라구요'를 부르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가장 대학생다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재북인사들의 묘’에 머물러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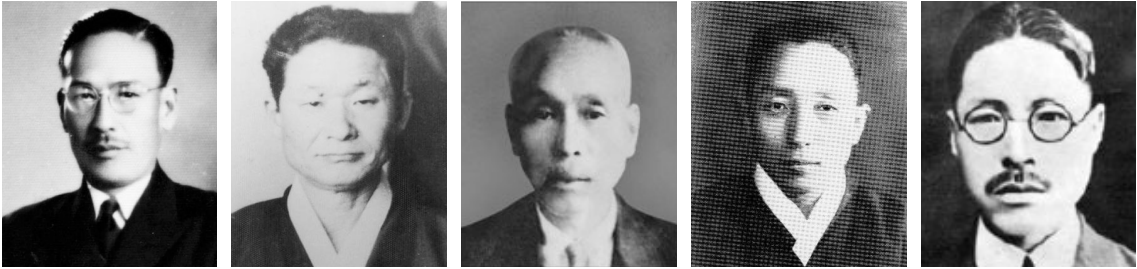


임 대 현
서강대 사학과 4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솔한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 운동가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북 애국지사’ 인데, 분단 이후 북한에 머물게 된 독립 운동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월북 인사들도 있었지만, 그 중 상당수가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희생자들이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대남선전과 통일전략에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 조직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1)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단체 지도층에서는 북한의 위장평화전략에 이용되지 않고 조국의 평화통일목적달성만을 지향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재북 애국지사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의한(金毅漢)을 들 수 있다. 서얼 출신이며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를 지낸 김가진(金嘉鎭)의 아들이기도 한 김의한은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약하였다. 1946년 5월 귀국 후 독립운동사 자료 수집에 힘쓰고, 1948년 4월 한국독립당 대표로 남북협상에 참가하는 등 해방 후에도 조국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갔으나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김의한 선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네이버 지식사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 '재북 인사들의 묘'에 안장되어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김의한, 김상덕, 윤기섭, 엄항섭, 안재홍(좌측부터)

또 다른 인물로는 김상덕(金尙德)이 있다. 김상덕은 일본과 중국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인데 일본에서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재만농민동맹 활동도 하고, 조선민족혁명당 위원과 임시정부 선전위원으로도 활약하였다. 1945년 11월 제1차 임시정부 귀국단으로 귀국하여 비상국민회의의 대의원과 독립촉성국민회·민족통일총본부의 총무부장을 지냈고, 1948년에는 민족통일총본부 소속으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으나 역시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윤기섭(尹琦燮) 또한 대표적인 남북 독립 운동가이다. 광복이 되자 귀국하여 1946년 좌익 세력의 연합조직인 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단의 부의장·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남조선과도 입법위원회에 선출되어 부의장을 맡았다. 1948년 국학대학의 학장이 되었으나 6·25 전쟁 때 북한에 납북되었다. 그러나 1959년 북한 정권은 윤기섭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숙청하였다.

김구(金九)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엄항섭(嚴恒燮) 역시 납북된 독립 운동가이다.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법무부참사 등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22년에는 항저우의 지장대학을 졸업하고 임시의정원의원·임시정부비서국원으로 활약하였다. 1924년 상하이 청년동맹회를 조직하여 집행위원회에 선출되었으며, 1926년 임시의정원 헌법기초위원회에 선임되었다. 이후 애국단 조직에 참여하여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를 지원하였고, 1940년에는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이 되었다. 1941년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외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한중문화협회 한국 측 이사로도 활동하였다. 해방이 되자 임시정부 국무위원 자격으로 귀국하여 평양의 남북협상과 남북 15요인회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6·25 전쟁 때 납북되어 1965년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안재홍(安在鴻)도 대표적인 재북 애국지사이다. 안재홍은 조선일보사 사장, 물산장려회 이사로 국산품 장려운동을

별인 독립 운동가이며, 고대사 연구에 몰두하여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애쓴 학자이기도 하다. 또한 신민족주의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광복 직후 여운형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곧 탈퇴하여 한국독립당 중앙위원을 지냈고, 1946년 한성일보사 사장, 비상국민회의 의원, 민주의원 의원, 좌우합작위원회 의원,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남북되기 전까지 1947년 미군정청 민정장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 중 많은 2)독립운동가들이 북한이 2004년 새롭게 조성한 '재북인사들의 묘(평양 용성구역 용궁동 칠성봉)'에 묻혀있다. 이 작업은 200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덕분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북 애국지사들의 무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또한 이곳에는 제헌의원 16명과 제2대 국회의원 18명 등 남한의 의원 출신 인사도 많이 묻혀 있다고 한다.

재북 애국지사의 대다수가 독립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쳤음에도 이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통일된 조국에서 눈을 감지 못하였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들은 두 동강 난 영토의 한 켠에 쓸쓸히 묻혀있다. 그럼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평양에 있는 재북 애국지사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민족에 대한 희생정신을 생각한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재북 애국지사라고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독립운동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6·25 전쟁의 발발과 함께 찾아온 내·외부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으로 인해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재북 애국지사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더불어 대중의 관심이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며 나아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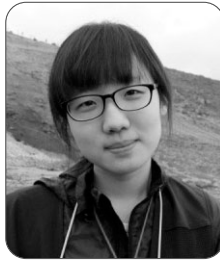


▲ 지난 2006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북 인사들의 묘'에 영면해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방북성모단이 '재북인사들의 묘'를 성모하기 위해 방북 하였다.

2) 통일뉴스 - 북, 남북인사 묘지 통합 조성(2004년 4월 7일)

코너속의 코너-interview

임시정부 품 안에서 자란 임정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박도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2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최희수
이화여대 독어독문학과 2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앞서 재북 애국지사에게 관한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북 애국지사의 아들이자 임시정부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이하 임정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을 찾아뵈었다. 김자동 회장님은 역사를 직접 경험하신 산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1. 재북 애국지사이신 회장님의 아버지(성엄 김의한 선생)를 비롯하여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신 가족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성엄 김의한)는 할아버지(동농 김가진)를 따라 민족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그 후 어머니(수당 정정화)도 상하이로 건너왔고 나는 임정 본부가 위치한 상하이 한인 마을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할아버지(동농 김가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분은 개화파 중심의 김홍집 내각에 참여하여 홍범 14조를 직접 기초했다. 그 후 대한협회의 회장으로 한일합병을 반대하였고 한국이 강제로 합병을 당한 후에는 대동단을 결성 및 상하이로 망명하여 민족운동에 힘썼다. 어머니(수당 정정화)는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



▲ 옛 추억들을 회고하며 인터뷰 중인 김자동 회장

해 망명길에 올랐고 임정의 자금 조달과 임정 요원들의 뒷바라지에 헌신하였다. 아버지는 임정에서 실무 요원이자 김구 선생의 비서로 일했다. 6·25전쟁 당시, 조소앙 선생을 비롯한 인사들과 함께 납북되었다. 그리고 2006년 재북 애국지사 후손 성모단을 통해 40년 만에 '재북 인사들의 묘'에 묻혀있는 아버지께 인사드릴 수 있었다.

2. 저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재북 애국지사들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서 생소합니다. 재북 애국지사들의 공훈이 독립운동사적인 차원에서 지금껏 조명을 잘 받지 못해왔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회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박해가 있었습니까?

북행을 한 사람이 납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분명한 증인이 없는 경우엔 월북으로 처리된다. 말만 연좌제를 없앤다고 하였지, 월북자의 가족은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다. 그래도 나는 '점은 찍혔다' 라는 느낌은 받았어도 대놓고 박해를 받진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신문기자를 했다는 점이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한국사 교육에서 임시정부와 재북 애국지사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회장님께서는 임시정부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만큼 제가 역사책에서만 봤던 인물들에 대한 일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와 관련된 인물들과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안창호 선생과 우리 가족은 각별한 사이였지만 나는 안창호 선생과 5살 때 헤어져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구 선생과는 국내에 와서도 1년에 5~6번 찾아뵈었다. 김구의 작은아들과는 중국에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 형제처럼 지냈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류한다.

4. 어린 시절 타지에서 망명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고충이 있으셨나요?

타국에서 나라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 피난 생활을 했으니 고생스럽긴 했다. 하지만 여자 피모두들 고생하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풍요롭게 지내진 못했어도 힘들다거나 통탄스러운 생각은 들지 않았다. 국내에 있었다라면 그보다 가혹한 일제의 압제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정신적으로는 덜 위축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할까, 오히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종의 재미로까지 느껴지기까지 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때는 짚신 외에 별다른 신발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손수 따듯하고 튼튼한 형짚신발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다.

5. 어린 나이셨는데 그 당시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혹은 시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나요?

나이에 비해서는 시국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사 잡지와 신문을 가까이 하고 지냈다. 한국독립당 사무실에서 책도 읽고 자연스럽게 당무도 거들었다. 특히 중국의 주요 일간지를 읽고 스크랩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었다. 아버지께서도 내가 제법 일을 잘 처리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당무의 상당부분을 내게 맡겨 주셨다. 학교 진학 공부보다도 훨씬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6. 회장님께서는 근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체험한 산증인으로서, 남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스스로 올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비단 내 개인만이 아닌 나의 주변사람들과 나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겨레 피붙이에 대해서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나가려고 한다. 비록



▲ 인터뷰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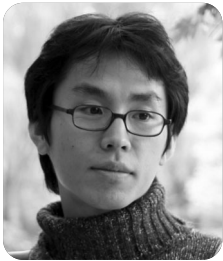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나는 북쪽 동포에 대해서도 항상 애뜻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7. 앞으로 역사를 배우고 공부할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사과목이 없어질 위기에 처할 만큼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소홀하고, 그마저도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역사는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학교나 대학입시뿐 아니라 모든 국가고시에서, 모든 국가기관 안에서 역사를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라에서 나서서 가르쳐야 한다.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고사는 제외한다고 쳐도, 근현대사만큼은 중점적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닫고 철저히 공부해 주었으면 좋겠다. ☺



〈꽃비〉에서 〈꽃잎〉까지, 한국영화와 근현대사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제주 4·3사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헌트〉(1996)를 다시 보면서, 4·3을 소재로 한 극영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중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 〈꽃비〉(2010)를 찾아 보게 되었다. 비단 〈꽃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사를 다루는 여러 시도들이 영화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에서는 한 작품에 한정짓지 않고, 〈꽃비〉와 함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었던 장선우 감독의 〈꽃잎〉(1996),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2007) 등 우리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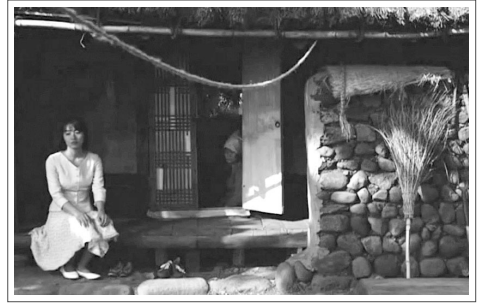
먼저 영화 〈꽃비〉는 4·3사건을 소재로 하는 극영화이다. 하지만 영화는 해방 직후가 아니라 1950년대로 추정되는 제주도의 작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줄거리는 급장 자리를 두고 다투는 두 명의 남학생 도진과 민구,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한 소녀 서연의 이야기이다. 이들 사이에 있던 나뭇의 균형관계는 육지에서 전학 온 다른 동일이 끼어들면서 달라진다. 학생들에게 급장 선거를 제한한 동일은 도진 편에 붙어서 민구의 패거리를 제압하고, 친구들 사이의 이간질을 이용해서 서연까지 범하려 한다. 결국 영화는 해방 직후 미군정하의 남한 사회의 권력 관계를 영화 속의 인물들을 통해 비유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 외에도 서연의 어머니와 담임선생 등의

회상 장면, 그리고 학교를 떠도는 귀신 등을 통해서 4·3사건이 남긴 흔적들을 반추해 보기도 한다.

영화 <꽃비>가 4·3을 돌아보는 방식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다. 과거 사건의 고증을 통한 재현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적 지형의 역관계를 의인화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또한 비유의 단순화에 따른 가장 분명한 한계는 논쟁적 요소와 소통의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꽃비>의 장점은 이야기보다는 시대적 아픔을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과 함께 따뜻하게 녹여내는 정서적 접근에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딘가 근대적 주체의 자기중심적인 화법에 그치는 면도 있다. 역사는 마치 멀어진 풍경과 같이 서글프면서도 쟁점들을 흐려놓은 채 그려지게 된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는 영화 <화려한 휴가>는 <꽃비>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했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재현에 초점을 맞추는 이 영화가 그 이야기의 바탕으로 삼은 역사적 실화는 8,90년대 민중가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사연과 같다. 이 노래는 알려진 바대로 당시 도청을 사수하다가 희생된 한 청년과 활동가 여성과의 영혼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졌었다. 영화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들의 시위부터 시작해서 군부의 발포, 시민군의 도청 점령과 공수부대의 진압에 이르는 자세한 과정을 그린다.

역사적 사건을 충실히 재현한 이 영화에서도 극화 과정에서 연출되고 추가 혹은 선택된 요소들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는 시민군의 입장에서 장르적 전형에 따라 명확한 대치 구도로



▲ 위에서부터 영화 <꽃비>, <꽃잎>, <화려한 휴가>



“

영화 <꽃비>가 4·3을 돌아보는 방식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다. 과거 사건의 고증을 통한 재현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적 지형의 역관계를 의인화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또한 비유의 단순화에 따른 가장 분명한 한계는 논쟁적 요소와 소통의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

서술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확고한 감독의 믿음임은 영화 전체적으로 분명하다. 이 때 영화는 진실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물론 영화는 그 자체가 의견이 아닌 입장으로서는 존중 받고 지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자체가 사실과 혼동될 수는 없다. 영화는 최대로서도 진실의 근사치에 다가가는 신화를 만들 뿐이다. 혹은 현실과 영화는 다른 공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소통과 반성 역시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국 영화들이 우리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방식은 대부분 조금 모호하거나 혹은 너무 명확한 입장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다른 접근이 있었다면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장선우 감독의 <꽃잎>이 독특한 한 예가 될 것이다. 영화가 개봉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꽃잎>은 지금으로서도 무척 낯선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은 광주 진압 당시 어머니를 잃고 그 충격으로 이내 미쳐버린 한 소녀다. 그녀는 역시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해 죽은 오빠를 찾아 떠돈다. 영화는 그 소녀를 만나게 된 한 낱뿔이 인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구의 여동생인 그녀의 행방을 찾아가는 대학생들 일행인 ‘우리’가 있다. 영화는 소녀가 겪은 사건을 따라서, 혹은 소녀와 인부의 관계를 따라서 흐르는 듯 하다가, 곧 해결할 수 없는 실종 사건을 만들어가는 대학생들의 회상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이야기에도 그 중심은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 소녀의 과거조차 역사적 사건과 그녀의 환상 사이에서 쉽게 뒤섞인다.

영화 <꽃잎>에서 역사에 대한 명확한 태도나 의미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영화가 그러한 대안 시도를 애초에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영화의 전후로 <너에게 나를 보낸

다>(1994), <나쁜 영화>(1997)와 같은 문제작들을 만들었던 장선우 감독이 이제는 광주민주화 운동까지 소재로 삼아서 소녀에 대한 가학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영화를 찍었다고 보는 것은 역시 무리이다. 나쁘게 말하더라도 그러한 평가는 감독의 개성의 문제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하며 굳이 평가할 실익도 없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사적 사건이 다큐멘터리와 후일담 형식을 비롯한 여러 층위의 복합적 이야기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한 소녀의 신체적 기억으로서 영화를 통해서 묘사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화려한 휴가>에서 관객들은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는 시민군들의 최후를 비장하고 감동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꽃잎>처럼 끔찍하고 아프게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기억은 (마치 소녀처럼) 찾을 수 없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억되지 못하는 파편들과 같다. 그러한 자기회의적인 태도가 있는 한 영화는 결코 말랑말랑한 신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한국 영화들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역시 영화는 항상 현실에 대한 어떤 의견이거나 해석, 혹은 시선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완전하게 탈역사적인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영화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만일 영화가 진실을 다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관객들에게 있어 어떤 거리감과 방향감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영화가 역사를 잊어서도 안되겠지만, 그것을 손쉽게 영화에만 맡길 수도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영화에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장 유효한 태도는 역사적 쟁점을 사회적으로 의제시키거나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만드는 역할이 아닐까 싶다. 결국 영화는 영화에 지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소통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계는 계속 된다.

참고로 한국 영화들이 어떻게 근현대사를 대하고 있는가를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러한 과거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70년대 군부 독재 시대의 영화 통제와 산업 중심의 진흥책, 그리고 80년대 문화통치 이후로 우리 근현대사의 쟁점을 영화가 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 되지 못했다. 영화와 역사가 마주 볼 수 없었던 시절이 그만큼 길었던 것이다.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들의 진일보함은 근현대사에 대한 사회 고발적 저널리즘과 후일담 사이에서 시작했다.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1992)과 같이 근현대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역사적 수정주의의 태도를 가진 작품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매천 윤봉길 의사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우재
매천윤봉길월진회장/前 국회의원

윤봉길 의사의 고향인 예산에서 초·중등 학생에게 매천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기생 이름 이에요”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절보고 “무얼 하고 계시냐”며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고향 예산에서 월진회 회장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월진회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진회는 윤봉길 의사께서 상해에 가서서, 홍구 공원에서 백천대장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예산 덕산에서 야학, 애국계몽운동, 체육회, 농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하던 조직이라고 한참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하다보면 상대방은 월진회라는 명칭을 잊고 일진회라는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친일과 집단 일진회와 월진회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 의사님, 오늘의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참으로 탄신 103년이 지난 이 나라 역사 교육이 한심하며 부끄러움과 분노를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윤봉길하면 의혈 청년이 홍구 공원에서 백천대장을 물통폭탄으로 죽인 애국자, 또는 테러리스트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의사의 성장과 사상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 매한 윤봉길 의사의 25세 애국훈이 묻힌 암장지(일본 가나자와시 소재)

사람이 내 안부를 물으면 월진회(月進會)가 무엇인지 윤봉길 의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참 설명하다가 내가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이 요즈음 생활입니다.

더욱이 요즈음 건국 60주년이니 박정희 기념관이니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이 윤봉길 의사를 일본 가나자와시(金澤市)로 데려가서 총살하고 길거리의 쓰레기장에 묻어놓은 것을, 해방 이후 힘겹게 유해를 발굴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곳 일본 가나자와에는 윤 의사 암장지(暗葬地) 2평에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을 간단하게 마련해 놓아서 가나자와를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 참배하면서 순국하신 지 80년이 지난 오늘 윤 의사의 살신성인, 애국충정과 자유·평등·평화의 윤 의사님의 숭고한 사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곳 가나자와시에는 윤의사 유해를 발굴했던 한국 사람들이 월진회 일본 지부를 만들어서 윤의사 암장지 관리와 윤의사 님의 선양 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 도의원, 시의원과 교수들 31명이 “尹奉吉義士 共の會”라는 조직을 만들어 윤봉길 의사의 훌륭한 사상을 기리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거 기념일 4월 29일에는 매년 20여 명이 한국의 예산·덕산 월진회 문화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한·중·일·몽골·연해주 5개국이 동북아평화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백년편지 |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의사 암장지는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 언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정을 우려한 일본 “尹奉吉義士 共の會”의 모리 카즈토시(森 一敏) 가나자와 시의 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아마데 다모츠(山出 保)시장이 각별한 배려와 노력으로 암장지를 영구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는 보존하게 되었고 윤의사의 자유, 평등, 평화사상을 전파하는 성지로서 계속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이 암장지를 발굴·보전·관리하시던 월진회 일본 지부장이시었던 박인조(朴仁祚)선생님이 2009년 10월 84세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월진회를 이끌어오셨던 前 월진회 회장 윤규상 선생님과 저 이우재가 문상차 가나자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장에 나가는 도중에 30분만 시간을 내어 일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윤봉길 의사에 대하여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서 윤규상 선생님께서 30분간 윤의사에 대하여 강의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귀국하여 덕산에서 월진회 행사가 있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께 윤 의사 모교이니 그 행사에 1시간만 학생들을 참석시켜 윤 의사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자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왜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학부모들이 왜 학생들 수업시간을 1시간씩 빼먹느냐고 항의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통탄스러웠습니다. 일본 초등학교에서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30분 만이라도 이야기 해달라는데 윤 의사 고향 윤 의사 모교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현이 누구냐고 물으면 기생 이름이냐고 하고 내가 월진회 회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윤 의사에 대하여 한참 이야기해도 일진회가 어머니 하면서 친일 일진회와 월진회를 구분 못하는 지식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윤봉길 의사님. 제가 왜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여 찾았는데,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조국 광복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는데, 일제 침략 36년이 이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데, 윤 의사님 25세 꽃다운 청춘을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일곱 글자 남겨 놓고 장렬하게 떠나셨는데, 아직도 이 조국은 자주통일국가가 못 되었습니다. 한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강대국 세력들은 이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한반도를 패권다툼의 놀음장으로 농



▲ 지난 201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윤봉길 의사의 사상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립군 잡던 만주군관학교 장교 친일 잔재 세력들이 건국 60년이니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느니 하며 민족과 역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친일잔재 세력이 주도한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친일 잔재 세력이 민족의 정통성에 부합하는 역사 교육을 할 리가 없습니다. 윤 의사님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1호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습니다. 윤 의사님이 민족 독립의 영웅이 되시면 김구 선생님과 임시 정부가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친일파들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대상입니다. 기념사업이나 하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날보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하면 윤봉길 의사님 모시고 독립운동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일제 침략 1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의사님의 뜻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을 위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윤 의사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아시아 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

직지와 외규장각 의궤의 어머니 - 박병선

:: 공지희 글, 김지안 그림/글로연 출판사 펴냄



▲ 직지와 외규장각 의궤의 어머니 - 박병선



▲ 재물 민족사학자였던 故 박병선 박사(192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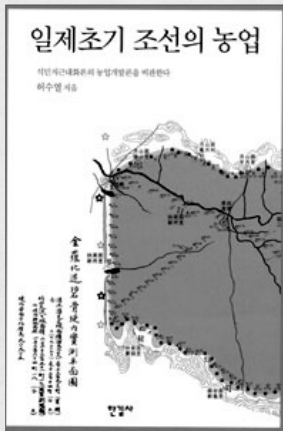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임을 증명하고, 강탈당한 외규장각 의궤 297권을 찾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평생을 바친 박병선 박사. 이 책은 '한국의 딸' 박병선이 '직지와 외규장각 의궤의 어머니-박병선'으로 불리기까지의 전 생애를 전달하고 있다. 박병선 박사가 걸은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역사학자로서의 치열한 삶의 면면과 조국애가 독자들에게 생생하고 절절하게 다가갈 것이다.

병상에 누워서도 자신의 몸을 걱정하기보다는 그가 해내 고자 한 역사 연구와 저술을 다 끝내지 못하였음을 안타까워하며, 누군가가 자기 대신 꼭 이뤄내 주기를 바라던 그의 한마디는 그가 조국의 역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넘쳐 흘렀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외규장각 의궤가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을 지켜본 박병선 박사는, 2011년 11월 23일 우리 곁을 떠나 영면에 들었다. 그러나 박병선 박사의 전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과 집념을 응축한 '박병선의 유전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리라 기대해본다. (공)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 허수열 지음/한길사 펴냄



▲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식민지근대화론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2011, 한길사)은 평범한 제목과는 달리, 한국 근현대 농업 전반을 대상으로 식민지근대화론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매우 논쟁적인 책이다. 저자 허수열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개발 없는 개발』(2005)을 펴낸 이후 식민지근대화론 측에서 제기된 비판 중에서 농업부문과 관련된 것을 반비판할 목적으로 다시 이 책을 저술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식민지근대화론의 그간의 비판은 어느 하나도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개발 없는 개발』에서 주장된 내용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실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인가 : 식민지근대화론이 주장하는 바닥의 실체

한국 근현대 경제의 변화에 대한 식민지근대화론의 인식은 U자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조선후기에 대해서는 조선 스스로 몰락했다는 '조선후기 위기론'을 주장하였고, 개항 이후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그것이 해방 후의 한국경제 발전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일제 초기 언저리를 경계로 하여 그 이전에는 몰락, 그 이후에는 발전이라는 역사상, 바로 그것이 '식민지근대화론'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근대화론의 이러한 주장은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한국 역사학계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해방 후 한국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을 청산하는 것에 주력해 왔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이런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고, 일본의 조선지배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소략한 언급을 제외하면 사실상 식민사관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되돌아가버렸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그들은 조선후기가 어떻게 쇠망하게 되었는가를 밝히거나, 일제강점기에 조선경제가 얼마나 빨리 개발되었으며 조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일제초기의 조선의 농업인가?

일제초기는 압도적으로 농업이 중심적인 사회였고, 식민지근대화론에서 말하는 U자 곡선의 제일 바닥에 해당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이 바닥에 해당하는 일제초기의 조선의 농업생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U자 곡선을 선명하게 하려고 하였다. 바닥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선시대 위기는 더 뚜렷해지고, 일제강점기의 개발도 한층 더 뚜렷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초기의 조선의 농업을 들여다보면, 식민지근대화론이 주장하는 바닥의 실체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㉞

흔들려 다시 피는 시간

∴ 천정배(본회 이사) 지음/돌아온 산 출판사 펴냄



▲ 흔들려 다시 피는 시간

“천정배, 가슴 속에 묻어 둔 말을 털어 놓다”

천정배 민주당 前 최고위원이 자전적 에세이 「꼭지머리를 묶은 인권변호사」, 법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천정배의 정치구상 「정의로운 복지국가」에 이은 네 번째 책 〈흔들려 다시 피는 시간〉을 내놓았다.

이 책은 일곱 말벗과 천정배가 나누는 대화이다.

1) 대담자 소개


- 'FTA 종결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생동하는 한법' 조국 서울대 교수
- '유연한 진보 똑순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 'KBS에서 몇 안되는 얼굴 있는 PD'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 '비례대표제 전도사'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 '지금 이 순간의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 서해성 작가

지난 10년 동안 천정배가 겪었던 2007년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단식 및 그 후 비준반대 투쟁, 법무부 장관 시절의 검찰개혁과 강정구 불구속 지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의 국가보안법 폐지 좌절,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 사태와 그 후의 투쟁,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민주당의 쇄신정풍운동과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르는 굵직한 사건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천정배는 이 사건들에 대해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털어 놓았다. 평소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비화와 기록도 공개하였다. 한미 FTA 졸속타결을 반대하며 단식했던 25일간의 일기, 강정구 불구속 지휘를 두고 청와대, 법무부, 검찰 사이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일기, 2009년 민생포차를 끌고 전국을 떠돌며 썼던 일기 등은 천정배의 당시 고뇌와 진솔함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또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를 막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2001년 민주당 쇄신정풍운동이 본격화하기 전 DJ와의 독대 일화를 소개하며 2002년 정권재창출은 사실상 당의 쇄신요구를 받아들였던 DJ의 작품이라고 술회한다.

이것은 지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오늘 이 순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과제로, 그리고 미래의 전망과 비전으로 풀어내기 위해 이 부분을 명실공히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흔들려 다시 피는 시간」은 한홍구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천정배 정치'에 '직설'을 펴부으며 앞으로의 구상과 각오를 풀어낸 시간이다.

책 제목이 「흔들려 다시 피는 시간」인 것은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격동하는 이 민심의 파도에 배를 띄워야 한다. 이것이 개혁 리더십이다. 개혁과 진보를 흔들어 대는 자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래, 지금 흔들려도 좋다. 흔들리는 힘으로 나아가리라.”는 천정배의 다짐이다. 

태초에 술이 있었네

:: 김학민(본회 이사/前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지음/서해문집 펴냄



▲ 태초에 술이 있었네

「태초에 술이 있었네」의 저자 프레시안 음식문화학교 김학민 교장을 만난 것은 박종철 민주열사 25주기 추도식 후에 가진 조 출한 뒤풀이 자리에서다. 그 자리에는 25년 만에 얼굴을 드러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축소은폐 사실을 세상에 알린 숨은 공로자 안유 님과 한재동 님이 함께 했다. 거기서 저자가 자신의 따끈한 저서 「태초에 술이 있었네」를 증정했다.

뒤풀이 자리는 즐겁고 유쾌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시대적 역사적 사건의 숨겨진 비화를 들을 수 있던 자리여서 시간가는 줄 을 몰랐다. 나중에 받아 읽게 된 「태초에 술이 있었네」는 유쾌한 술자리만큼이나 맛깔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술술 넘어가는 술과 문화 이야기다.

저자는 동서양 술의 유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 술잔, 전통주, 술의 두 얼굴, 술집 의 인심까지를 맛깔스럽게 버무려 마지막 장이 언제 넘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술술 넘어갈 만큼 흥 미롭게 풀어낸다. (M)

“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음료”

술의 역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구한 것은 술이 하늘에 제를 올릴 때 사용하던 음료, 자연발생 적으로 시작된 위로부터 내려온 문화이기 때문이다. 성경이나 산화에 술이 등장하고 한민족은 고래 로부터 하늘을 우러르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백성이라는 기록에서 술의 사용을 알 수 있다.

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음료다. 술은 그 탄생부터 자연발효라는 신비로움을 함축하고 있고, 또 생산력이 빈약하던 시절 먹을거리로서의 효용을 희생시키고 갈무리한 곡식의 진액이기 때문에 제사 때 신에게 바치는 귀한 음료였다. 또 제사가 끝나고 음복에 참여하는 자들도 지배층이었기 때

문에 상당 기간 술은 상류층만이 그 기묘한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상류층만 즐길 수 있었다던 술, 지배계층의 전유물로 제사상에 올리던 술이 화학물질을 첨가한 소주 등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일반화되었다. 아편, 차, 커피 등과 마찬가지로 술은 국가나 민족을 망가트리는 부정적인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다. 어쨌거나 이제 술은 전 세계 인구 중 70%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료가 되었다.

한국인의 서민 술은 단연 막걸리다. 막걸리는 곡식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대표적인 술이다. 농경사회이고 하늘을 우러르는 제사 의식을 중요시한 한민족이니 가정마다 가양주가 발달되고 차례나 제사를 위해 집집마다 술 익는 냄새가 났음직하다. 실제로 일본과 박정희 정권이 술을 집에서 빚는 것을 금지하기 전 농촌에서는 집집마다 술을 빚어 상차림이나 손님 접대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시골에서 유년을 보낸 이들은 어릴 때 막 거른 새참 막걸리 심부름을 하며 주전자에 입을 대 슬쩍 맛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나의 막걸리 맛보기는 70년대 말 시대의 암울함과 20대의 저항이 맛물려 드나들던 '화사랑'에서 시작된다. 신촌에서 기차를 타고 백마역의 '화사랑'에 가서 금지곡인 한대수의 노래나 김민기의 노래도 듣고 막걸리에 파전을 놓고 오랜 시간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막걸리를 못 마시던 나는 그저 안주나 축내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 자주 술자리에 끼었다.

언제부터인지 베니어판 천정에 알몸 전구 하나 달랑 달린 낙원동 일대 막걸리집이나 성대 근처 주점 대신, 소주와 호프집 생맥주가 젊은이들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막걸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쌀 소비량이 줄어들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 막걸리를 빚기 시작해 다시 막걸리 붐이 일기 시작하더니, 막걸리 학교와 다양한 기능성 막걸리까지 등장해 이제는 막걸리의 춘추전국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설이나 명절에 맑은 술인 청주가 아닌, 탁주 막걸리로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나 보다. 막걸리를 음복했다는 지인이 있으니 말이다. 막걸리가 대세가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문화일까?

「태초에 술이 있었네」는 단순한 맛집과 술에 대한 소개가 아니다. 저자의 삶과 약력이 말해주듯 일제의 단속과 서양 술의 반입으로 잃어버렸던 알과 술의 역사, 사회문화적 의미를 촘촘하고 유쾌하게 엮었다. 책 속에는 눈물이 있고, 운동과 역사의 현장이 있고, 사람의 체취가 있으며, 오랜 전통과 사회문화적 자부심이 장마다 가득 가득 담겨있다. 그야말로 술과 문화와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 음식문화예술의 한 마당이 질펀하고 흥미롭게 펼쳐지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동서남북 그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더라도 훈훈한 사람의 체취와 독특한 술맛과 맛깔스러운 안주가 있는 집이 당신을 손짓해 술술 술을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 좋은 벗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술자리만큼 맛있고 유익한 술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서평 - 이명옥(자유기고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이봉창의사 의거 제80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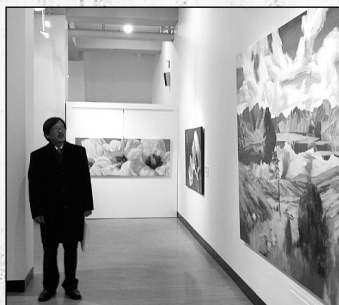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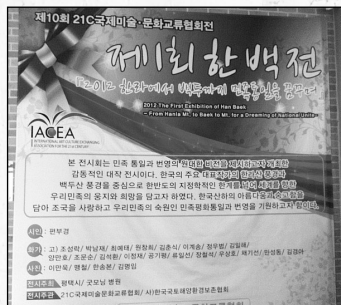


▲ 이봉창의사 의거 제80주년 기념식

지난 1월 8일(일),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이봉창의사 의거 제8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봉창의사 기념사업회(회장 문국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박우철 광복회장, 김신 백범기념관장과 본회 김자동 회장 등 각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들과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그린 연극 <나는 지금 희망을 던진다> 공연 후 약사보고,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장의 식사(式辭)에 이어 국가보훈처 차장·광복회장의 기념사, 헌화,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2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통일을 꿈꾸며> 전시회

본회 이사 및 남서울대 교수인 이정재 21C국제미술문화교류협회장이 주관한 <2012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통일을 꿈꾸며> 전시회가 지난 1월 20일(금)~2월 15일(수) 일정으로 평택호 예술관(경기도 평택시)에서 개최되었다. 총 23인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백두산 풍경에서부터 한라



▲ <2012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통일을 꿈꾸며> 전시회

산까지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하여 민족 통일과 번영을 희망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전시기간 동안 약 1,7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2·8독립선언 선포 제93주년 기념식

지난 2월 8일(수), 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 임우철) 주관으로 2·8독립선언 선포 제9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의 행사는 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 안홍순 광복회 부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 애국지사의 2·8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 2.8독립선언 선포 제93주년 기념식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의 기념사,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회 김자동 회장과 김삼용 이사 등이 참석 하였다.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출범 및 창립총회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의 본산이었던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의 창립총회가 지난 2월 15일(수) 중구 남창동 상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는 학술회의, 전시회, 강연회, 현지답사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정신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 서거 76주기 추모제

단재 신채호 선생 서거 76주기 추모제가 지난 2월 21일(화) 충북 청원군 낭성면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에서 열렸다.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김원웅)가 주관한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제에는 신채호 선생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 조선의열단을 창단하고 광복군을 결성한 김원봉 열사의 증손녀 윤영화 여사,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창단한 윤세주 열사의 증손녀 윤영화 여사 등 각계각층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단재 신채호 선생 서거 76주기 추모제



제12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2월 16일(목) 본회 회의실에서 이일선 사무처장의 사회와 김정록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제12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진행은 개회, 보고와 안전(①제7차년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②제8차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③신임 임원 승인 및 임원변동의 건, ④기타),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독립정신 산악회 첫 산행 일정안내

2012년도 독립정신 산악회는 신임 산악회장(이호현)과 함께 인왕산 시산제를 시작으로 첫 산행을 시작한다. 올해 산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된다. 첫 산행인 만큼 많은 학생과 일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산행일자 : 2012년 3월 24일(토)
- 산 행 지 : 인왕산
- 집합장소 : 사직공원 내(사직단), 오전 11시
- 문 의 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처 (TEL. 02-3210-0411)
- 교 통 편
지하철 - 경복궁역(3호선) 1번 출구 하차
버스 - (지선)7025, (간선)171, 601, 606, 706, 708; (광역)9703, 9706,
(마을버스)종로 05 탑승 → 사직공원 하차

■ 바로잡습니다.

『독립정신』 61호(2012년 1월·2월)에 게재된 '2011년 10월 미납회비' 명단은 '2011년 10월 회비 납부자' 명단 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본의아니게 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께 미납회비자로 안내되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2년 1월, 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월	2월
(사우정·동호회·선생)기념사업회	20,000	10,000
강만길	20,000	
강재욱	20,000	20,000
강찬모	20,000	20,000
곽태원	50,000	50,000
권상윤	10,000	10,000
권순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길시원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김동현	10,000	10,000
김도현	20,000	
김보성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김삼웅	10,000	10,000
김산근	10,000	10,000
김성근	2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김소중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김연실	10,000	10,000
김영림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김원규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김위현	50,000	50,000
김윤수	30,000	30,000
김자동	100,000	100,000
김재홍	10,000	10,000
김정경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김종성		20,000
김정록	50,000	50,000
김중배	20,000	20,000
김준상	200,000	100,000
김중숙	10,000	10,000
김진경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김진한		30,000
김진현	50,000	50,000
김판수	5,000	5,000
김학근	10,000	10,000
김현모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노영택	20,000	
류동연	5,000	5,000
민항선	2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박두곤	10,000	10,000
박아영	10,000	10,000
박양수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박은봉	30,000	30,000
박의란	30,000	30,000
박인석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회원명	1월	2월
박영순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백영미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서영훈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성인재(약주)	100,000	100,000
신명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안영찬	5,000	5,000
안효진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염기남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오성근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오영은	30,000	30,000
오은주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원영애		30,000
유기수	10,000	10,000
유은숙	10,000	10,000
유원목	20,000	
유중하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윤영소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윤한옥		10,000
이건용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이두엽		20,000
이두희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이성배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이원희	100,000	100,000
이윤옥	20,000	20,000
이응국	5,000	5,000
이인석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이정재	50,000	50,000
이종락	30,000	30,000
이중찬	100,000	100,000
이창복	40,000	20,000
이창중	20,000	20,000
이학노	20,000	20,000
이학효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이화순	30,000	30,000

회원명	1월	2월
이혜숙	10,000	10,000
이호헌	20,000	20,000
임재경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장팔순		20,000
전창일	20,000	20,000
정동익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정범구	30,000	30,000
정재경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정철승	60,000	30,000
정환기	10,000	10,000
조기식	2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조세현	20,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조준표		10,000
조희환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차영조	30,000	30,000
천장배	3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최문성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최병욱	10,000	
최영진	1,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황승일	10,000	10,000
홍승현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2012년 1월, 2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1월	2월
최기창	10,000	10,000

2012년 1월, 2월 특별회비

회원명	1월	2월
(주)오도 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김준현	5,000,000	
이동철	360,000	
이승호	350,000	
조인호	50,000	
한성훈	100,000	
황인섭	50,000	
이현배		50,000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의립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민족주의자의 비극과 영웅주의자의 타락

항일



조명희 (1894~1938)



충북 진천에서 몰락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1920년 동경 유학시절 극예술연구회에 참가했으며, 1921년 동우회 순회극단의 일원으로 연극운동을 전개했다.

1925년 카프(KAPF: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에 가입하였고 식민지 조선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을 그린 <망속으로>(R군에게)<저기압>(농촌사람들)<동지>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고 단편소설집<낙동강>이 있다.

1928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한 뒤, 한인촌 교사로 일하면서 연해주 한인신문과 잡지 등에 시와 기고문을 발표했다. 1934년 소련작가동맹의 원동지부 간부로 일하는 한편,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대하소설 <만주 빨치산>을 집필했다.

그러나 집필 중이던 1938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가 실시되는 와중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하였다. 뒤에 복권되었고 '러시아 한인문학의 아버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동인 (1900~1951)



창시명 : 히가시 후미토미(東文仁)

1919년 도쿄에서 최초의 문학동인지 <창조>를 발간했고 귀국 후, <배따라기><감자><광염 소나타> 등 단편소설과 <운현궁의 봄><젊은 그들>과 같은 역사소설을 집필했다.

1939년 성전중군작가의 일원으로 중국을 돌며 일본군을 위문했고, 이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조선문인보국회 등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했다. 그의 친일소설로는 <백마강>(매일신보 1941)과 <성암의 길>(조광 1944)이 있다. <백마강>은 "내선일체의 성지 백제를 배경으로 신체제에 적응하여 역사소설의 신기원을 만들고자" 쓴 소설이고, <성암의 길>은 도쿠카와 막부 시절의 시인이자 양이근왕론자(攘夷勤王論者)였던 하리가와 센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천황이데올로기를 선전하려는 작품이었다.

이 외에도 <충동원태세로><반도민중의 황민화>(일장기 물결) 등 친일수필을 다수 발표하여 문필보국에 앞장선 대표적 친일문인이었다.



친일

100年 편지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

www.korea100.org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업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